

코로나 이후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

2023. 10. 11 (수)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



주 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협력단체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사)대한노인회수정 · 중원 · 분당구지회,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남시민포럼, 고도제한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국제스마트복지센터(GSWC), 환경과복지를 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복지공공연구소, 사)한국지속기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코로나 이후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

일 시 | 2023년 10월 11일 (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 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축 사 1】.....	신 상 진 성남시 시장
【축 사 2】	박 은 미 성남시시의회 부의장
【주 제】	코로나 이후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
【주 제 발 표】	
배 은 경 교수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
【토 론 문】	
김 기 주 부회장 (요양병원협회).....	39
서 희 경 시의원 (성남시의회).....	45
윤 미 정 상임팅장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1
신 명 희 관장 (중원노인종합복지관)	59
남 현 주 교수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67
【부 록】 본 연구회 (연혁/공지사항/협력기관 및 단체) 소개.....	75

프로그램

1 부

사회 : 석 춘 지
(전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인사말.....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4) 축 사 신 상 진 성남시 시장
..... 박 은 미 성남시 시의회 부의장
.....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 5) 단체기념사진 모든 참석자

2 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주제발표

코로나 이후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

..... 배 은 경 교수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 론

..... 김 기 주 부회장 (요양병원협회)
..... 서 희 경 시의원 (성남시의회)
..... 윤 미 정 상임팀장 (성남시 건강복지센터)
..... 신 명 희 관장 (중원노인종합복지관)
..... 남 현 주 교수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참관자 질의/응답

○ 총 마무리 발언배 은 경 교수

축 사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맞춤형 복지도시 성남시에서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단순히 복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 실현을 목표로
사각지대 없는 희망복지도시 성남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성남시장 신 상 진

축 사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부의장 박은미입니다.

「코로나 이후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계자 여러분과 토론회에 참석 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와 힘겨운 공존을 치르며 우리 사회의 대다수는 인간관계 단절 및 사회신뢰도 하락 등 정서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생활이 장기화 되면서 만연해진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여 각종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며, 극단적으로는 고독사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연령을 불문하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생애주기 특성상 관계 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집단은 단연코 퇴직 및 자녀 독립, 배우자 사망 등을 경험하는 노년층일 것입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 속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2022년 기준 20.8%에 육박한다는 통계수치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년층의 경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치매 유발 및 인지력 악화 등 사회적 고립이 노년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태조사 및 예방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고립 위기에 처한 노년층을 적극 발굴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지원사업 등에 심혈을 기울이며 다양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도움을 청할 능력이 없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위기 독거노인가구를 알리는 등 이웃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밑거름으로 우리 사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흔들린 사회적 관계망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결속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성남시의회도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입법 제안을 통해 전 세대가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성남시로 나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 해 주신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계자 여러분과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토론을 계기로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수렴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부의장 박 은 미

[주 제 발 표]

코로나 이후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

배 은 경 교수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코로나 이후 노년층¹⁾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 모색²⁾

1. 여는 글

지난 1월 26일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홀로 살던 70대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설 연휴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난 때였다. 그의 죽음을 외부에 알린 건 냄새였다. “옆집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씨의 죽음을 처음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검게 변해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은 설 연휴에 급성심장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초수급자인 이씨가 남긴 마지막 생존 흔적은 숨지기 한 달 전 동네 주민센터 직원에게 “생수 한 병 사다 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발견 당시) 냉장고나 주방에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세상과 단절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무연고사로 처리됐다.

정신영, 백재영(2023. 4. 25.). ‘생수 한병 사다 주세요’ 무연고 이씨의 마지막 문자.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97622&code=61121111&cp=nv>에서 2023. 9. 21. 인출.

2020년 코로나 팬더믹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어왔다. 코로나 팬더믹은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고립과 우울, 돌봄 문제로 이어졌으며, 특히 노년층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노인의 3고(三苦)로 불리는 빈곤, 질병, 고독으로 인한 어려움이 코로나 이후 더욱 극심해지는 추세이다. 노년층은 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다른 세대(청년층 및 중년층)에 비하여 복지제도에 편입된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고독사 현황 분석에서 60대 이상이

- 1) ‘노년층’의 구체적인 연령 범위 및 명칭은 관련 연구 및 법령, 정부부서에 따라 60세, 65세, 70세 이상으로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함. 본 발표에서는 60세 이상부터 노년층으로 분류한 선행연구 및 통계 현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년층을 60세 이상에 해당되는 세대로 구분하여 기술함
- 2) 본 발표문은 연구자가 참여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연구: 델파이 기법을 중심으로’(배은경 외, 2023),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정순돌 외, 2022)의 연구결과 중 세대별 분석 자료를 일부 활용하여 코로나 이후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됨

38.8%를 차지할 정도로(보건복지부, 2022) 사회적으로 고립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코로나 팬더믹의 장기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제약되며 우리 국민의 우울 및 불안 수준 상승, 대인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 등으로 정신건강 상의 위기 신호도 발생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23), 높은 자살 사망률(인구 10만명당 명, 이하 자살률) 등을 고려할 때 노년층의 정신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 2023년 9월 21일 발표된 2022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23)에서 60대 이상의 자살률은 전체 평균 25.2명을 상회할 뿐 아니라 80세 이상의 자살률은 60.6명으로 평균의 2.4배에 달해 노년층의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우선 노년층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사회적 고립의 극단적인 결과로 볼 수 있는 고독사와 관련한 사회적 대응으로 2023년 5월 17일 제1차 고독사예방기본계획이 발표되는 등 국가의 정책적 접근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개념, 전문가 및 국민의 인식, 고독사 고위험군 현황 분석에 있어 노년층이 가지는 의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자살률을 비롯한 정신건강 지표를 통해 노년층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관련 국가기본계획(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제1차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계획)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쟁점을 논의함으로써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을 지원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노년층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주제이나, 본 발표에서는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측면에서 2023년 제1차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목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여건들(관계부처합동, 2023a, 2023b), 코로나 팬더믹 전후 세대별 사회적 자본 인식(이태진 외, 2023)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이 높은 구조적 변화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고립 및 단절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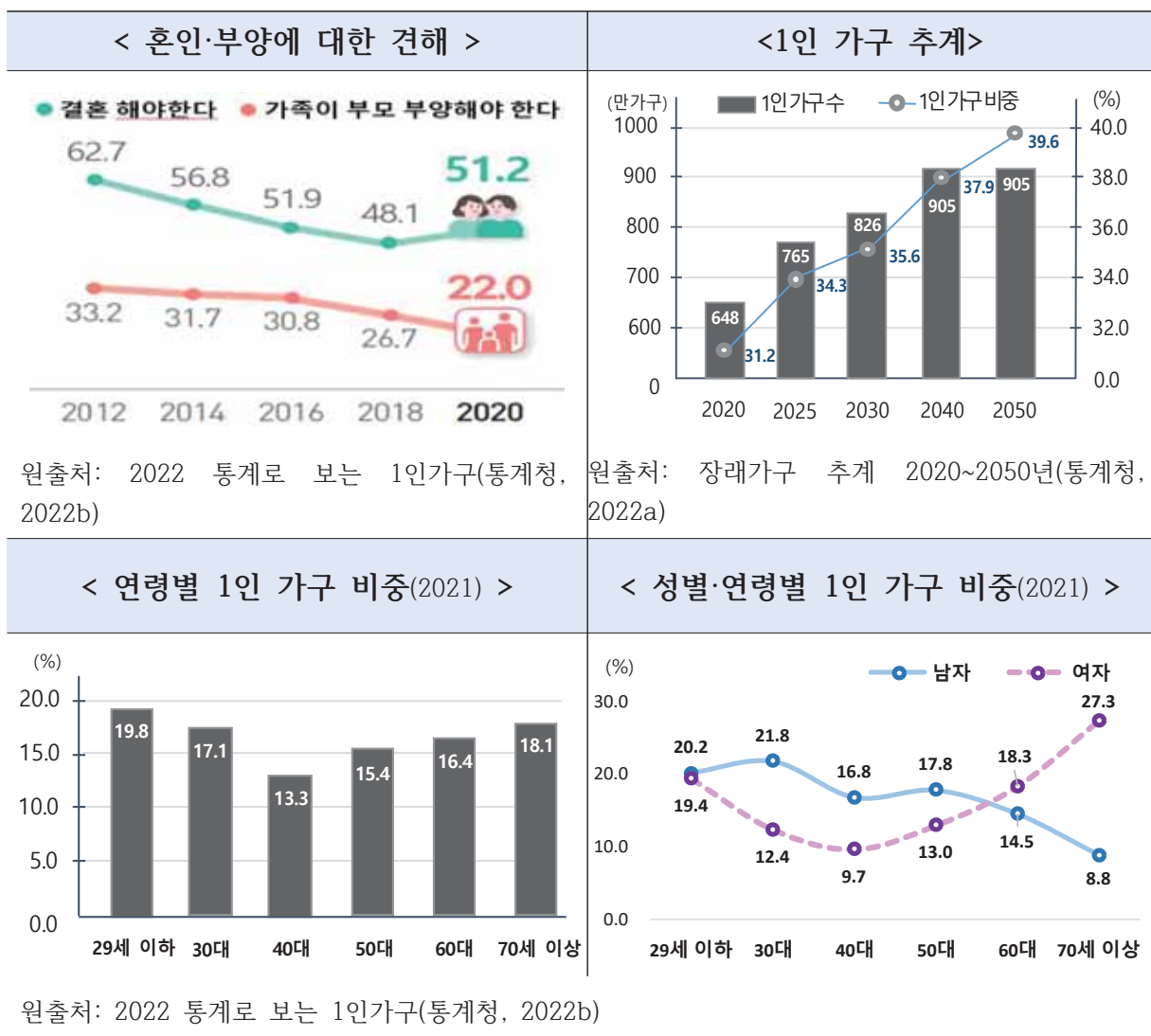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고립 및 단절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돌봄 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2022b)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

로 인식하는 비율은 2020년 22.0%까지 떨어진 상태인 반면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51.2%로 나타나 전통적인 가족 구성 및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 사회조사(통계청, 2022c)에서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응답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가족, 정부, 사회가 부모의 노후를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골고루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있으나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그 응답 비중이 더 큰 경향이 나타났다.

1인 가구의 비중(통계청, 2022a)은 2020년 전체 가구수 중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39.6%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기준 연령별 1인 가구 비중에 있어 60대 이상이 34.5%에 달하여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70대 이상 1인 가구 비중에서 여성이 3.1배에 달해 여성 노인의 욕구 및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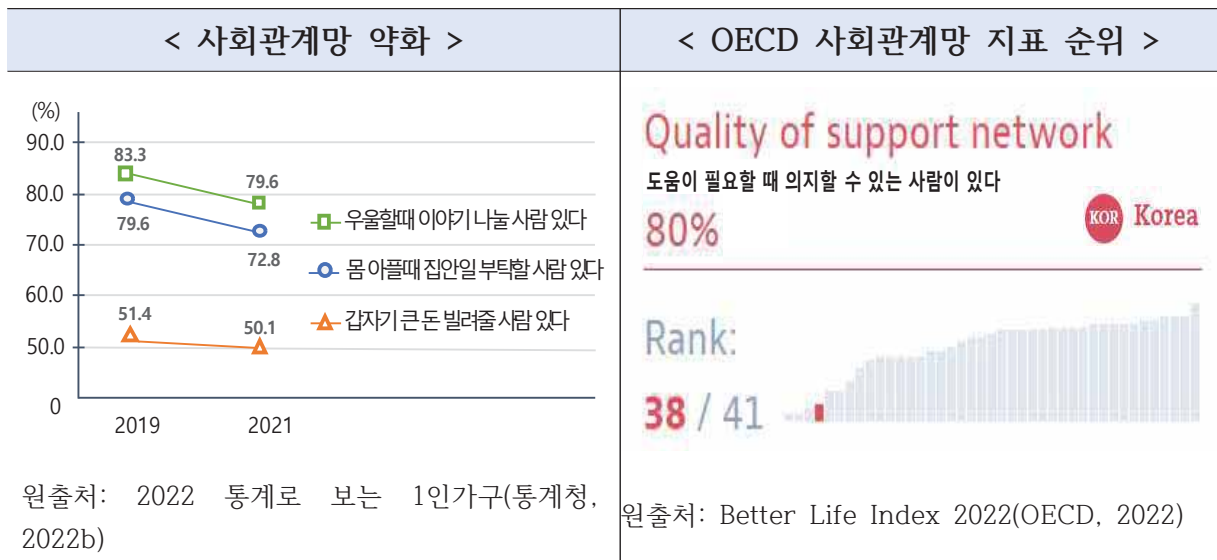
그림 1. 혼인·부양에 대한 견해 및 1인 가구 추계(관계부처합동, 2023b 재인용)



2) 사회적 관계망 측면에서 구성원간 고립과 단절 심화

사회적 관계망 측면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등에 따라 사회구성원간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OECD에서는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를 개발해 2011년부터 매년 회원국을 중심으로 측정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2022년 OECD에서 발표한 사회관계망 지표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에 대한 긍정 응답이 OECD 평균 91%이나, 한국은 80%에 불과해 41개국 중 38위를 차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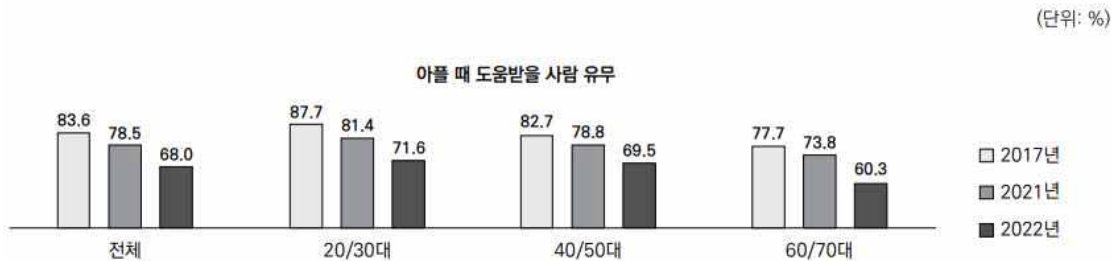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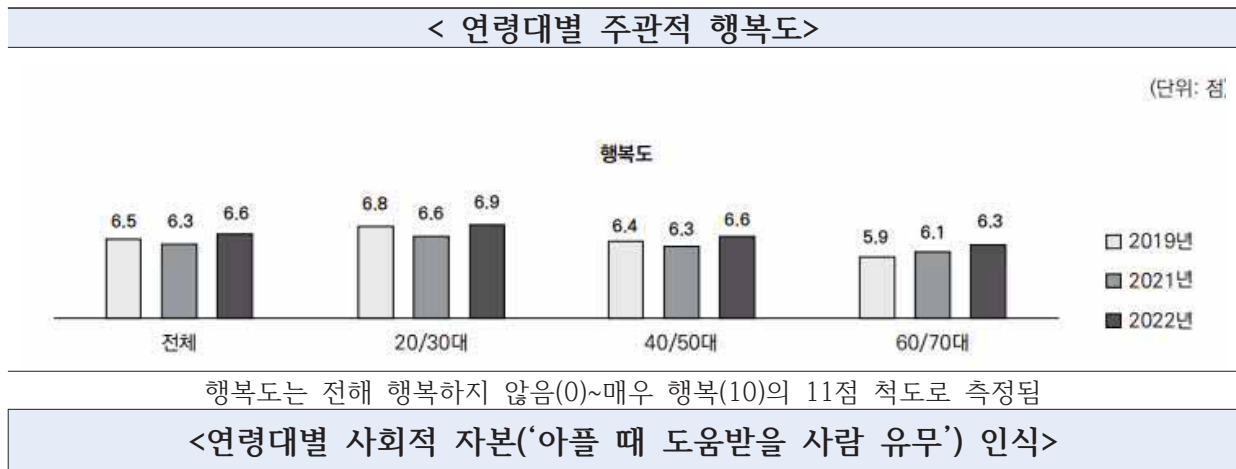
그림 2. 사회관계망 약화 및 OECD 사회관계망 지표 순위 (관계부처합동, 2023b 재인용)



3) 코로나 팬더믹 이후 노년층의 사회적 자본 인식 감소

코로나 팬더믹 이후 사회적 고립 인구가 늘고 있으며, 특히 노년층의 주관적 행복도 및 사회적 자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를 살펴본 이태진 외(2023)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주관적 행복도는 2022년 6.3점(11점 만점)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주관적 행복도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향상된 세대에 해당되나,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 유무’와 같은 사회적 자본 인식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전인 2017년 77.7%에 비하여 2022년 60.3%로 도움 받을 사람에 관한 인식이 17.4%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과의 격차는 다른 세대에서도 크게 나타났으나, 노년층의 건강 이슈 및 물리적 이동 등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 유무’와 같은 사회적 자본 인식은 노년층의 사회적 지지 및 고립감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 코로나 이후 연령대별 주관적 행복도 및 사회적 자본 인식(이태진 외, 2023)



기존 문항을 도움청할 사람 유무로 재코딩하여 분석, 있음 응답의 비율을 나타냄

원출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이태진 외, 2022).

3. 사회적 고립(고독사 및 고독사 고위험군)에 관한 인식 및 현황

1)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³⁾

고독사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2)에서 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에 해당되어 전체 인구 100명 중 1명은 고독사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사회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2019년(27.7%)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C). 특정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감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역시 모든 영역에서 3명 미만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립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어 사귀지 아니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톨이로 됨'을 의

3) 연구자가 참여한 '전라남도 고독사 실태 및 예방방안 연구'(용태희·배은경, 2023)의 개념 고찰을 중심으로 정리함

미하는 것으로(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고립이라는 용어에는 관계의 단절(사귀지 않는 것)과 지지적 측면의 결핍(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박선희·최영화, 2019).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개인, 지역사회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고 종국에는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 이르러 고독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춘남 외, 2018). 사회적 고립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 객관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수), 접촉빈도 등 타인으로부터의 고립과 분리된 정도로 정의하고, 주관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과 같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질적 수준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되며(이상철·조준영, 2017),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이 사회적 배제로 이어져 결국 임종 후에도 시신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상황으로 귀결되는 과정의 연속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방혜선 외, 2022).

고독사의 개념은 국내에서 2020년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제2조에서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최초로 법적으로 정의된 바 있다. 2023년 5월 발표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에서는 고독사를 고독사예방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개념화하였으나, 2022년 보건복지부·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정순돌 외, 2022)에서는 단절, 고립된 상태에서의 죽음을 고독사로 보았으며, 고독사의 개념에 독거 고독사 이외에 동거 고독사도 포함시키고, 사망 후 발견되기까지의 기간과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의 구분을 규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2023년 6월 고독사예방법 개정을 통하여 제2조 중 “홀로 사는”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으로, “혼자 임종을”을 “임종을”로 개정하였으며, 이는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이로써 정책 및 실천적으로 고독사를 접근함에 있어 물리적인 1인 가구 유무보다 동거가족의 질환 및 장애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1인 가구로 생활하며 사회적 고립의 상태에 놓인 고독사 고위험군(위험자)까지 조기발굴 및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고독사 개념에 있어 또다른 주요 이슈는 실태조사 및 행정적 개입에 있어 적용이 되는 기준에 있다. 가구유형, 자살, 사망장소, 사후 방치기간과 같은 고독사 요인이 실제 고독사 통계 생산 등에 있어 규정될 필요가 있기에,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고숙자 외, 2021)에서는 표 1과 같이 고독사 개념에 실질 1인가구⁴⁾, 자살사망자, 거주지로 사용하는 공간⁵⁾을 포함하고, 사후 방치기간을 3일로 정하여 실태조사 설계가 이루어진 바 있다.

4) 동거자가 혼자 생활이 어려운 의존상태이거나 입대, 구급, 입원 등인 상황

5) 고시원, 쪽방, 여관과 모텔 장기투숙, 창고, 승용차 등

표 1. 요인별 고독사 분류 기준(고숙자 외, 2021)

요인 구분	고독사 분류 기준	해설
가구유형	1인가구와 실질 1인가구	- 실질 1인가구 : · 동거자가 중증장애, 발달장애, 치매, 거동불가 등으로 누군가의 지원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동거자의 입대, 구금, 입원 등으로 실질적으로 홀로 생활하는 경우 · 동거자가 여행(출장)으로 홀로 생활하게 된 경우에 발생한 사례는 제외함(동거자가 사망자를 방치할 목적으로 출장 등의 상태였다면 형사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음)
자살	자살사망자 포함	- 거주지에서 자살로 사망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 시신은 고독사로 분류함
사망장소	거주지로 사용하는 공간	- 일반적인 주택 내에서의 사망 모두 포함 - 준주거(고시원), 쪽방, 여관과 모텔의 월방, 1인실 기숙사, 창고, 자신의 승용차 등을 주요 거주지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함
사후 방치기간	- 3일이 지난 시신 - 1개월이 지난 시신	- 3일이 지난 시신부터 고독사로 분류 - 1개월이 지난 시신 분류는 방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표 2. 국내 고독사 정의 및 개념요소

구분	정의	개념				비고
		단절· 고립	혼자 임종	시신 방치	거주 지	
고독사예방법 (2020.03.31. 제정)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	○	○		· 홀로 사는 사람 · 자살포함
고독사예방법 (2023.06.13. 일부개정)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		○		· 자살포함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3~’27)	「고독사예방법」 제2조(정의)에 따름	○	○	○		
정순돌 외	단절, 고립된 상태에서의 죽음	○				· 동거고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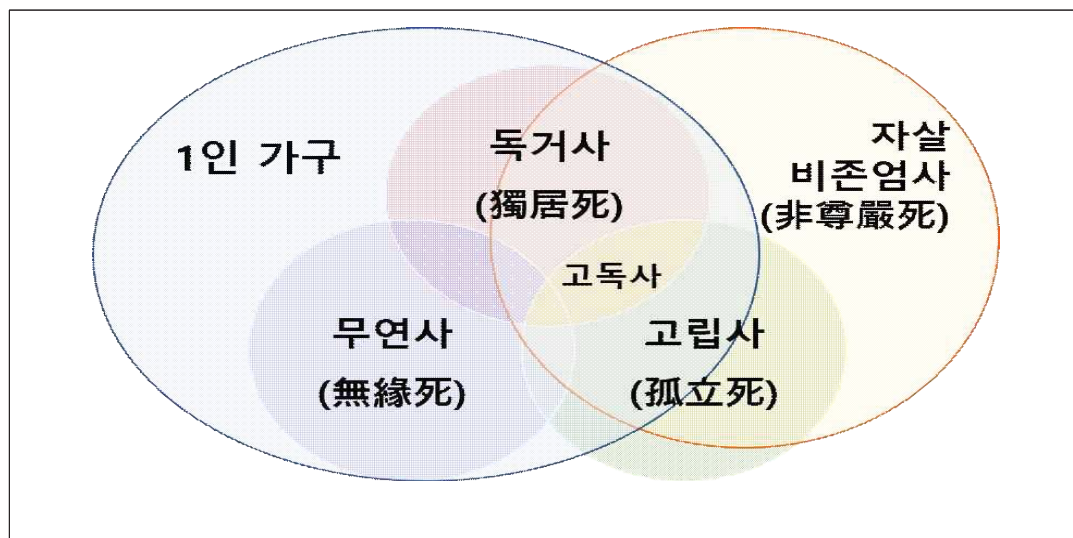
구분	정의	개념				비고
		단절· 고립	혼자 임종	시신 방치	거주 지	
(2022) 기본계획 수립 연구						포함
고속자 외 (2021) 실태조사 설계 연구	가족, 지인으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된 채 자살 또는 병사로 홀로 임종을 맞이하며, 통상적으로 시신이 사망한 후 3일 이상 방치되다가 발견된 죽음	○	○	○ (3일)		
권중돈(2010)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시신이 사망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되는 죽음		○	○		· 자살 미포함
정순돌·임효연 (2010)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되어 있어 외롭게 죽어가고 아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죽음	○				· 자살 미포함
이미애(2012)	아무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고, 그 후로도 상당 기간 방치되는 죽음	○		○		
송인주(2016)	가족,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독거인, 1인가구)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통상 3일 이후)	○	○	○ (3일)		· 혼자 살던 사람 · 자살포함
정은주·정봉현 (2017)	자택에서 혼자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여 수일이 지난 후 발견되는 경우	○		○	○	· ‘고립사’로 정의
최승호 외 (2017)	자택에서 혼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사망하여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수일, 수개월이 지난 후 발견되는 경우	○		○	○	
박선희·최영화 (2019)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지역사회 지원체계(공공, 민간 등)로부터 단절된 채 혼자 살던 사람이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7일)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	○	○ (7일)	○	· 혼자 살던 사람 · ‘고립사’로 정의
하석철·이선영 (2019)	가족과 이웃 등 주변으로부터 단절되어 돌봄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사는 사람이 거주지 등에서 홀로 사망한 후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 후에 타인에 의해 발견되는 죽음	○	○	○	○	· 혼자 사는 사람
임혜자·김동련 (2021)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 또는 동거하는 가족 등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		○		· 홀로 사는 사람 · 자살포함
류주연 외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단절되어 살아가는	○	○	○		

구분	정의	개념				비고
		단절· 고립	혼자 임종	시신 방치	거주 지	
(2022)	사람이 홀로 사망하여 일정 기간 이후 발견되는 고립된 삶과 외로운 죽음					

출처 : 고숙자 외(2021),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의 고독사에 대한 정의들을 활용하여 용태희·배은경(2023)에서 재구성.

마지막으로, 유사 개념과 사회적 고립 개념을 통하여 고독사(孤獨死)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송인주, 2016). 독거사(獨居死)는 혼자 살던 사람이 홀로 죽은 채 발견되는 것으로, 1인 가구 전체를 포괄하고, 소득수준, 사회적 고립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며, 고립사(孤立死)는 관계망이 단절된 생활(사회적 고립상태)을 하던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며, 1인 가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살(自殺)은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로, 집안에서 자살한 후 아무도 찾지 않아 시신이 부패한 경우에는 고독사에 해당된다. 무연사(無緣死)는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죽음으로, 제도적으로 사망자 발생 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말함한다. 고독사의 경우는 가족이 시신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독거사이면서 고립사일 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고독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독거사와 고립사를 모두 만족하는 자살과 무연고사망 사례도 고독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4. 고독사의 유사개념(송인주, 2016)



2)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문가의 인식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5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행한 결과, 고독사의 원인 및

영향 요인, 연령대별 고독사의 원인 인식, 연령대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인식(중요도/필요도) 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배은경 외, 2023).

첫째, 고독사의 원인 및 영향 요인에 관하여 델파이 패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고독사의 원인 및 영향 요인에 대하여 합의된 3차 델파이 조사 응답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응답자들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9.18점)에 대하여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관계의 단절(8.88점),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부족(8.58점), 친구와 이웃과의 단절(8.46점),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8.10점), 우울, 음주 등 정신건강 문제(7.80점), 경제적 위기(7.56점), 공동체의 붕괴(7.20점), 건강관리 부족, 질병 등으로 인한 신체 건강 문제(7.06점), 주거 불안정성(7.04점) 순으로 고독사의 원인 및 영향 요인을 인식하고 있었다. 고독사의 원인·영향 요인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가족관계의 단절,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 공동체의 붕괴,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부족,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델파이 조사 응답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개인적 요인 외에도 사회구조적 변화들이 고독사의 원인과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개인 및 가족 단위에서 기존에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보건의료정책 등을 넘어선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고독사의 원인 및 영향 요인 인식에 관한 2·3차 델파이 조사(배은경 외, 2023)

연번	내용	2차 델파이 조사			3차 델파이 조사		
		M	SD	CVR	M	SD	CVR
1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9.14	1.088	1	9.18	1.063	1
2	가족관계의 단절	8.84	1.346	0.92	8.88	1.223	0.96
3	친구와 이웃과의 단절	8.42	1.279	0.96	8.46	1.249	0.96
4	공동체의 붕괴	7.2	1.796	0.56	7.20	1.604	0.64
5	우울, 음주 등 정신건강 문제	7.7	1.961	0.8	7.80	1.690	0.88
6	건강관리 부족, 질병 등으로 인한 신체 건강 문제	7.16	1.845	0.72	7.06	1.778	0.72
7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	8.04	1.678	0.8	8.10	1.581	0.8
8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부족	8.56	1.402	0.92	8.58	1.386	0.92
9	주거 불안정성	7.04	1.749	0.6	7.04	1.690	0.64
10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6.5	1.854	0.4	6.44	1.752	0.4
11	경제적 위기	7.62	1.839	0.72	7.56	1.740	0.72
12	청년 실업	6.68	1.867	0.52	6.64	1.770	0.52
13	비정규직 증가	6.36	1.882	0.44	6.26	1.688	0.44
14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6.42	2.223	0.36	6.20	2.061	0.31

둘째, 연령대별 고독사의 원인에 관하여 델파이 패널의 인식을 청년층, 중년층, 전기 노년층, 후기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응답자들의 고독사 원인 인식을 3차 델파이 조사 중심으로 노년층 중심으로 정리하면, 전기 노년층의 고독사 원인은 외로움과 고립(8.9점), 신체·건강 문제(8.43점), 경제적 문제(8.06점), 공동체 붕괴(7.47점), 주거 문제(7.24점) 등의 순으로 인식되었다. 후기 노년층의 고독사 원인은 외로움과 고립(9.02점)이 가장 크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신체·건강 문제(8.8점), 케어(돌봄) 문제(8.76점)와 주거 문제(8.76점)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외로움과 고립, 신체·건강 문제는 전기 및 후기 노년층 모두에게 고독사의 원인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전기 노년층의 경우 경제적 문제와 공동체 붕괴, 후기 노년층에게는 케어(돌봄) 문제와 주거 문제가 고독사 원인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인식되었다.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있어서 청년(최지현, 조미형, 이승영, 2022), 중장년(박선희, 최영화, 2020), 노인(송인주, 2018)의 생애주기별 차이를 강조해왔는데, 막상 그동안의 정책, 서비스 대상 선정, 지원 내용에서는 생애주기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 오지 못했다. 이에, 고독사 원인이 생애주기별로 다르다면, 앞으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접근을 할 필요가 있으며, 노년층에게는 외로움 해소 및 사회적 관계 활성화, 건강관리와 돌봄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선순위는 낮아도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공통적인 원인 및 영향요인은 결코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함에 있어 전 연령층에서 개인과 가족, 지역 사회 차원의 접근부터 주거, 경제, 돌봄,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까지 이끌어내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표 4. 연령대별 고독사의 원인 인식에 관한 2·3차 델파이 조사(배은경 외, 2023)

연번	내용	2차 델파이 조사			3차 델파이 조사			
		M	SD	CVR	M	SD	CVR	
1	청년층 (20세 이상 ~ 40세 미만)	1) 구직 문제	7.68	1.571	0.72	7.73	1.511	0.76
		2) 경제적 문제	7.76	1.479	0.76	7.79	1.458	0.71
		3) 주거 문제	6.74	1.549	0.64	6.71	1.486	0.67
		4) 상대적 박탈감	7.32	1.596	0.72	7.33	1.463	0.80
		5) 외로움과 고립	7.88	1.698	0.84	7.76	1.652	0.84
		6) 신체·정신건강 문제	7.12	1.976	0.6	7.18	1.867	0.67
		7) 공동체 붕괴	6.52	2.013	0.44	6.41	1.825	0.55
2	중년층 (40세 이상 ~ 65세 미만)	1) 실업 및 은퇴 문제	8.5	1.282	0.92	8.59	1.117	0.96
		2) 경제적 문제	8.16	1.57	0.8	8.33	1.360	0.88
		3) 주거 문제	7.26	1.601	0.72	7.33	1.435	0.80
		4) 외로움과 고립	8.3	1.474	0.84	8.37	1.365	0.88
		5) 신체·정신건강 문제	7.92	1.724	0.8	7.90	1.674	0.84
		6) 공동체 붕괴	7.18	1.826	0.64	7.14	1.671	0.71
3	전기 노년층 (65세 이상)	1) 재취업 및 일자리 문제	6.98	1.79	0.68	6.96	1.695	0.67
		2) 경제적 문제	8.1	1.313	0.88	8.06	1.248	0.88

~ 75세 미만)	3) 주거 문제	7.32	1.435	0.72	7.24	1.300	0.76
	4) 외로움과 고립	8.86	0.881	1	8.90	0.848	1
	5) 신체·정신건강 문제	8.48	1.403	0.88	8.43	1.384	0.88
	6) 공동체 붕괴	7.42	1.667	0.68	7.47	1.582	0.71
4 후기 노년층 (75세 이상)	1) 경제적(안정적 소득) 문제	8.04	1.456	0.84	7.94	1.391	0.84
	2) 케어(돌봄) 문제	8.82	1.044	0.96	8.76	1.011	0.96
	케어(돌봄)와 주거 문제 ¹⁾				8.76	0.969	0.96
	3) 주거 문제				8.76	0.969	0.96
	4) 외로움과 고립	9.02	0.845	1	9.10	0.797	1
	5) 신체·정신건강 문제	8.76	1.021	0.96	8.80	1.040	0.96
	6) 공동체 붕괴	7.92	1.441	0.88	8.02	1.315	0.88

주: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케어(돌봄)와 주거 문제'로 구성된 문항이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케어(돌봄) 문제', '주거 문제'로 문항이 분리되어 델파이 조사가 이루어짐.

셋째, 연령대별 고독사의 원인과 지원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노년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기 노년층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중요도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외로움과 고립(8.61점), 신체·정신건강 문제(8.45점), 경제적 문제(7.88점), 공동체 붕괴(7.76점), 주거 문제(7.43점), 재취업 및 일자리 문제(7.33점) 순으로 응답되었다. 필요도 측면에서는 외로움과 고립(8.71점), 신체·정신건강 문제(8.67점), 경제적 문제(8.04점), 재취업 및 일자리 문제(7.54점), 공동체 붕괴(7.52점), 주거 문제(7.44점) 순으로 응답되었다. 후기 노년층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중요도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외로움과 고립(8.84점), 케어(돌봄) 문제(8.78점), 주거 문제(8.76점), 신체·정신건강 문제(8.69점), 공동체 붕괴(8.27점), 경제적(안정적 소득) 문제(8.14점) 순으로 응답되었다. 필요도 측면에서는 외로움과 고립(8.98점), 주거 문제(8.96점), 케어(돌봄) 문제(8.94점), 신체·정신건강 문제(8.88점), 경제적(안정적 소득) 문제(8.31점), 공동체 붕괴(8.06점)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5. 연령대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의 중요도와 필요도 인식에 관한 3차 델파이 조사(배은경 외, 2023)

연 번	내용	3차 델파이 조사					
		중요도			필요도		
		M	SD	CVR	M	SD	CVR
1 청년층	1) 구직 문제	8.14	1.354	0.88	8.20	1.871	0.88
	2) 경제적 문제	7.31	1.388	0.76	7.04	1.597	0.63
	3) 주거 문제	6.88	1.409	0.71	6.79	1.584	0.67
	4) 상대적 박탈감	7.41	1.499	0.76	6.81	1.770	0.63
	5) 외로움과 고립	7.65	1.549	0.84	7.33	1.802	0.71
	6) 신체·정신건강 문제	6.94	1.638	0.63	6.81	1.770	0.5
	7) 공동체 붕괴	6.39	1.618	0.51	6.25	1.804	0.38

2	중년층	1) 실업 및 은퇴 문제	8.35	1.300	0.88	8.48	1.414	0.88
		2) 경제적 문제	7.51	1.543	0.84	7.42	1.699	0.71
		3) 주거 문제	6.88	1.438	0.67	7.04	1.271	0.79
		4) 외로움과 고립	7.84	1.375	0.88	7.69	1.475	0.80
		5) 신체·정신건강 문제	7.61	1.426	0.88	7.60	1.410	0.88
		6) 공동체 붕괴	7.00	1.429	0.76	6.77	1.653	0.71
3	전기 노년층	1) 재취업 및 일자리 문제	7.33	1.573	0.76	7.54	1.487	0.79
		2) 경제적 문제	7.88	1.348	0.84	8.04	1.336	0.88
		3) 주거 문제	7.43	1.258	0.88	7.44	1.219	0.88
		4) 외로움과 고립	8.61	1.017	0.96	8.71	.922	1
		5) 신체·정신건강 문제	8.45	1.156	0.92	8.67	1.059	1.0
		6) 공동체 붕괴	7.76	1.362	0.88	7.52	1.487	0.79
4	후기 노년층	1) 경제적(안정적 소득) 문제	8.14	1.458	0.88	8.31	1.323	0.92
		2) 케어(돌봄) 문제	8.78	1.104	0.96	8.94	.998	0.96
		3) 주거 문제	8.76	1.090	0.96	8.96	.988	0.96
		4) 외로움과 고립	8.84	1.067	1	8.98	.887	1
		5) 신체·정신건강 문제	8.69	1.045	0.96	8.88	.937	1
		6) 공동체 붕괴	8.27	1.204	0.96	8.06	1.311	0.92

이러한 결과를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이하 IPA)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전기 노년층, 후기 노년층 대상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의 중요도와 필요도 인식 차이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 [그림 5], [그림 6]과 같다. 전기 노년층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의 중요도와 필요도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그림 5]와 같이 외로움과 고립(YO_4_4), 신체·정신건강 문제(YO_4_5)에 대한 요구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상대적으로 주거 문제(YO_4_3), 재취업 및 일자리 문제(YO_4_1)가 저순위 영역으로 나타났다. 후기 노년층 대상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의 중요도와 필요도 인식에 있어서는 [그림 6]과 같이 외로움과 고립(OO_4_4), 케어(돌봄) 문제(OO_4_2), 주거 문제(OO_4_3), 신체·정신건강 문제(OO_4_5)에 대한 요구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 붕괴(OO_4_6), 경제적(안정적 소득) 문제(OO_4_1)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전기 노년층 대상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의 중요도와 필요도 인식(IP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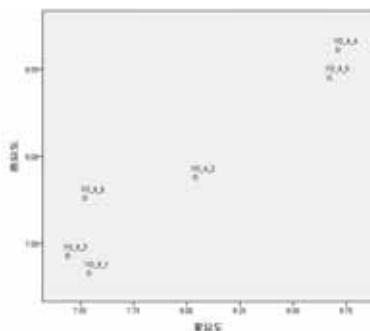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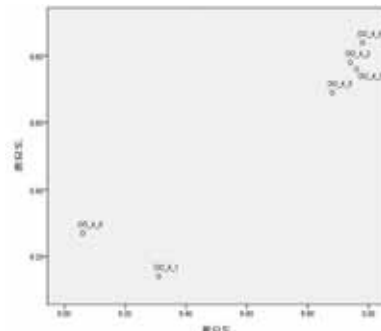


그림 6. 후기 노년층 대상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의 중요도와 필요도 인식(IPA 분석)



3) 연령대별 고독사 위험군 분석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독사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여 효과적인 예방체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독사 위험군 판단기준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회적 고립도에 관한 문항과 가구취약성에 관한 문항 등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고독사 위험군 유형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전국의 20세 이상 일반 국민 1,8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정순돌 외, 2023).

고독사 위험군은 사회적 고립도 7문항, 가구취약성 7문항을 기준으로 고위험군, 중위험군1, 중위험군2, 저위험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적 고립도, 가구취약성의 정도에 따라서 고위험군, 중위험군1, 중위험군2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늠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보았다. 위험기준 1을 적용했을 때, 고위험군은 사회적 고립도 2문항 이상이 '예'이면서 가구취약성도 2문항 이상이면 해당되며, 중위험군1은 사회적 고립도는 2문항 이상 '예'이면서 가구취약성은 2문항 미만 '예'인 경우에 해당된다. 중위험군2는 사회적 고립도는 2문항 미만 '예'이면서 가구취약성은 2문항 이상 '예'인 경우이며, 저위험군은 사회적 고립도, 가구취약성 각각 2문항 미만 '예'라고 응답했을 때 해당된다. 위험기준2는 위험기준1보다 고위험군, 중위험군1, 중위험군2의 범위를 좁게 규정한 것으로, 위험기준2를 적용했을 때, 고위험군은 사회적 고립도 3문항 이상 '예'이면서 가구취약성도 3문항 이상 '예'인 경우가 해당된다. 중위험군1은 사회적 고립도 3문항 이상 '예'이면서 가구취약성은 3문항 미만 '예'인 경우 해당되며, 중위험군2는 사회적 고립도 3문항 미만 '예'이면서 가구취약성은 3문항 이상 '예'인 경우이다. 저위험군은 사회적 고립도, 가구취약성 각각이 모두 3문항 미만으로 '예'인 경우가 해당된다.

조사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 위험군을 분석함에 있어 위험기준1을 적용했을 때,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전체 응답자와 비교해서 어느 고독사 위험군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은지를 알아보았다. 전체응답자 11.3%와 비교하여 고위험군인 비율이 15% 이상으로 높은 특성은 1인가구(+4.5%p), 70대 이상(+4.2%p), 혼인지위가 미혼(이성친구나 연인 없음)(+3.9%p), 이혼(+9.0%p), 사별(+12.2%p), 주택형태 기타(+11.4%p), 월세(+10.5%p), 경제활동 하지 않음(+8.6%p), 생계급여수급자(+35.9%p), 생계급여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수급자(+44.6%p), 주관적 경제수준 하(+5.0%p), 건강문제 있음(+42.7%p), 장애인 복지카드 있음(+34.5%p),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21.3%p)으로 나타났다. 전체응답자 19.4%와 비교하여 중위험군1 비율이 25% 이상으로 높은 특성은 1인가구(+7.3%p), 혼인지위가 미혼(이성친구나 연인 없음)(+9.0%p), 이혼(+16.5%p), 주택형태 기타(+31.8%p), 주택점유 무상 및 기타(+5.6%p)이었다. 전체응답자 3.2%와 비교하여 중위험군2 비율이 5% 이상으로 높은 특성은 읍·면·리 지역(+2.0%p), 30대

(+1.8%p), 50대(+2.3%p), 미혼(이성친구나 연인 있음)(+1.9%p), 주택형태 연립·다세대(+1.8%p), 월세(+2.6%p), 경제활동 하지 않음(+1.8%p), 생계급여수급자(+8.8%p), 건강문제 있음(+5.5%p), 장애인 복지카드 있음(+5.1%p),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3.2%p)로 나타났다.

표 6. 조사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 위험군: 위험기준1 적용(정순돌 외, 2022)

(단위: 명, %)

특성		사례수	고위험군 (사회적고립 ≥ 2 & 가구취약성 ≥ 2)	중위험군1 (사회적고립 ≥ 2 & 가구취약성 < 2)	중위험군2 (사회적고립 < 2 & 가구취약성 ≥ 2)	저위험군 (사회적고립 < 2 & 가구취약성 < 2)
전체		1,833	11.3	19.4	3.2	66.2
가구원 수	1인 가구	868	6.1	13.6	2.0	78.3
	2인 이상 가구	965	8.8	20.0	2.1	69.1
거주지역(구분)	읍·면·리 지역	172	5.5	19.2	1.2	74.1
	동 지역	1,661	7.0	15.1	3.5	74.4
연령대	20대	286	6.0	13.5	1.8	78.7
	30대	298	4.9	16.1	2.8	76.2
	40대	356	5.7	16.1	1.3	76.8
	50대	386	6.5	17.4	2.0	74.2
	60대	326	7.8	15.8	1.6	74.9
	70대	181	3.4	6.1	0.6	89.9
성별	남자	898	8.8	7.2	5.0	79.0
	여자	935	7.7	12.2	1.9	78.2
혼인상태	미혼(이성친구나 연인 있음)	353	4.5	15.0	2.0	78.5
	미혼(이성친구나 연인 없음)	447	5.7	14.7	1.1	78.5
	결혼(재혼, 동거 포함)	715	7.8	21.0	3.4	67.8
	별거	18	2.5	6.2	1.0	90.3
	이혼	128	0.0	16.7	0.0	83.3
	사별	170	9.4	26.6	4.7	59.4
최종학력	기타	2	14.7	13.5	2.4	69.4
	고졸	682	50.0	0.0	0.0	50.0
	대졸	998	7.8	11.6	2.9	77.7
	대학원졸	153	5.5	15.5	1.3	77.7
세대유형	1세대	1,228	2.0	10.5	2.0	85.6
	2세대	568	6.8	16.1	2.0	75.2
	3세대	37	4.6	8.6	1.9	84.9
주택 형태	단독주택	349	0.0	0.0	0.0	100.0
	연립/다세대	421	8.3	12.0	3.4	76.2
	아파트	1,041	5.9	13.5	2.1	78.4
	기타	22	5.2	14.0	1.3	79.4
주택 점유형태	자가	976	13.6	22.7	4.5	59.1
	전세	405	1.9	10.9	0.8	86.4
	월세	400	5.9	13.1	3.0	78.0
	무상 및 기타	52	15.5	20.0	3.8	60.8
경제활동	활동	1,291	11.5	21.2	1.9	65.4
	비활동	542	3.6	14.3	1.2	80.9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생계급여수급자	108	12.0	12.0	3.9	72.1
	의료급여 수급자	34	36.1	9.3	13.0	41.7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1,691	32.4	17.6	2.9	47.1
주관적 경제수준	하	1,089	3.6	13.8	1.2	81.3
	중	631	8.8	16.9	2.6	71.7
	상	113	2.1	10.1	1.3	86.5
건강문제 있음	예	150	1.8	1.8	0.0	96.5
	아니오	1,683	34.0	29.3	7.3	29.3
장애인 복지 카드 소지	예	48	3.6	12.2	1.5	82.7
	아니오	1,785	29.2	31.3	8.3	31.3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313	5.4	13.2	1.8	79.6
	보통	1,061	19.2	24.6	4.2	52.1

특성	사례수	고위험군 (사회적고립 $\geq$ 2 & 가구취약성 $\geq$ 2)	중위험군1 (사회적고립 $\geq$ 2 & 가구취약성 $<$ 2)	중위험군2 (사회적고립 $<$ 2 & 가구취약성 $\geq$ 2)	저위험군 (사회적고립 $<$ 2 & 가구취약성 $<$ 2)
좋은	459	4.3	14.5	2.0	79.2

위험기준2를 적용했을 때,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전체응답자와 비교해서 어느 고독사 위험군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은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응답자 6.1%와 비교하여 고위험군인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은 특성은 혼인상태 사별(+8.6%p), 주택형태 기타(+7.5%p), 주택 점유 월세(+9.4%p), 무상 및 기타(+5.4%p), 경제활동 하지 않음(+5.9%p), 생계급여수급자(+30.0%p), 생계급여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수급자(+25.7%p), 건강문제 있음(+27.9%), 장애인 복지카드 있음(+23.1%p),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13.1%p)이었다. 전체응답자 13.6%와 비교하여 중위험군1 비율이 20% 이상으로 높은 특성은 1인가구(+6.6%p), 미혼(이성친구나 연인 없음)(+7.4%p), 이혼(+23.0%p), 주택형태 기타(+9.1%p), 주택 점유 월세(+6.4%p), 무상 및 기타(+7.6%p), 건강문제 있음(+15.7%), 장애인 복지카드 있음(+17.7%p),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11.0%p)으로 나타났다. 전체응답자 2.0%와 비교하여 중위험군2 비율이 5% 이상으로 높은 특성은 생계급여수급자(+9.0%p), 건강문제 있음(+5.3%), 장애인 복지카드 있음(+6.3%p)이었다.

표 7. 조사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 위험군: 위험기준2 적용(정순돌 외, 2022)

(단위: 명, %)

특성	사례수	고위험군 (사회적고립 $\geq$ 2 & 가구취약성 $\geq$ 2)	중위험군1 (사회적고립 $\geq$ 2 & 가구취약성 $<$ 2)	중위험군2 (사회적고립 $<$ 2 & 가구취약성 $\geq$ 2)	저위험군 (사회적고립 $<$ 2 & 가구취약성 $<$ 2)
전체	1,833	6.1	13.6	2.0	78.3
가구원 수	1인 가구	868	8.8	20.0	69.1
	2인 이상 가구	965	3.6	7.9	86.6
거주지역(구분)	읍·면·리 지역	172	7.0	15.1	74.4
	동 지역	1,661	6.0	13.5	78.7
연령대	20대	286	4.9	16.1	76.2
	30대	298	5.7	16.1	76.8
	40대	356	6.5	17.4	74.2
	50대	386	7.8	15.8	74.9
	60대	326	3.4	6.1	89.9
	70대	181	8.8	7.2	79.0
성별	남자	898	7.7	12.2	78.2
	여자	935	4.5	15.0	78.5
혼인상태	미혼(이성친구나 연인 있음)	353	5.7	14.7	78.5
	미혼(이성친구나 연인 없음)	447	7.8	21.0	67.8
	결혼(재혼, 동거 포함)	715	2.5	6.2	90.3
	별거	18	0.0	16.7	83.3
	이혼	128	9.4	26.6	59.4
	사별	170	14.7	13.5	69.4
	기타	2	50.0	0.0	50.0
최종학력	고졸	682	7.8	11.6	77.7
	대졸	998	5.5	15.5	77.7
	대학원졸	153	2.0	10.5	85.6
세대유형	1세대	1,228	6.8	16.1	75.2
	2세대	568	4.6	8.6	84.9
	3세대	37	5.4	8.1	83.8

특성		사례수	고위험군 (사회적고립≥2 & 가구취약성≥2)	중위험군1 (사회적고립≥2 & 가구취약성<2)	중위험군2 (사회적고립<2 & 가구취약성≥2)	저위험군 (사회적고립<2 & 가구취약성<2)
주택 형태	단독주택	349	8.3	12.0	3.4	76.2
	연립/다세대	421	5.9	13.5	2.1	78.4
	아파트	1,041	5.2	14.0	1.3	79.4
	기타	22	13.6	22.7	4.5	59.1
주택 점유형태	자가	976	1.9	10.9	.8	86.4
	전세	405	5.9	13.1	3.0	78.0
	월세	400	15.5	20.0	3.8	60.8
	무상 및 기타	52	11.5	21.2	1.9	65.4
경제활동	활동	1,291	3.6	14.3	1.2	80.9
	비활동	542	12.0	12.0	3.9	72.1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생계급여수급자	108	36.1	9.3	13.0	41.7
	의료급여 수급자	34	32.4	17.6	2.9	47.1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1,691	3.6	13.8	1.2	81.3
주관적 경제수준	하	1,089	8.8	16.9	2.6	71.7
	중	631	2.1	10.1	1.3	86.5
	상	113	1.8	1.8	0.0	96.5
건강문제 있음	예	150	34.0	29.3	7.3	29.3
	아니오	1,683	3.6	12.2	1.5	82.7
장애인 복지 카드 소지	예	48	29.2	31.3	8.3	31.3
	아니오	1,785	5.4	13.2	1.8	79.6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313	19.2	24.6	4.2	52.1
	보통	1,061	4.3	14.5	2.0	79.2
	좋음	459	1.1	4.1	.4	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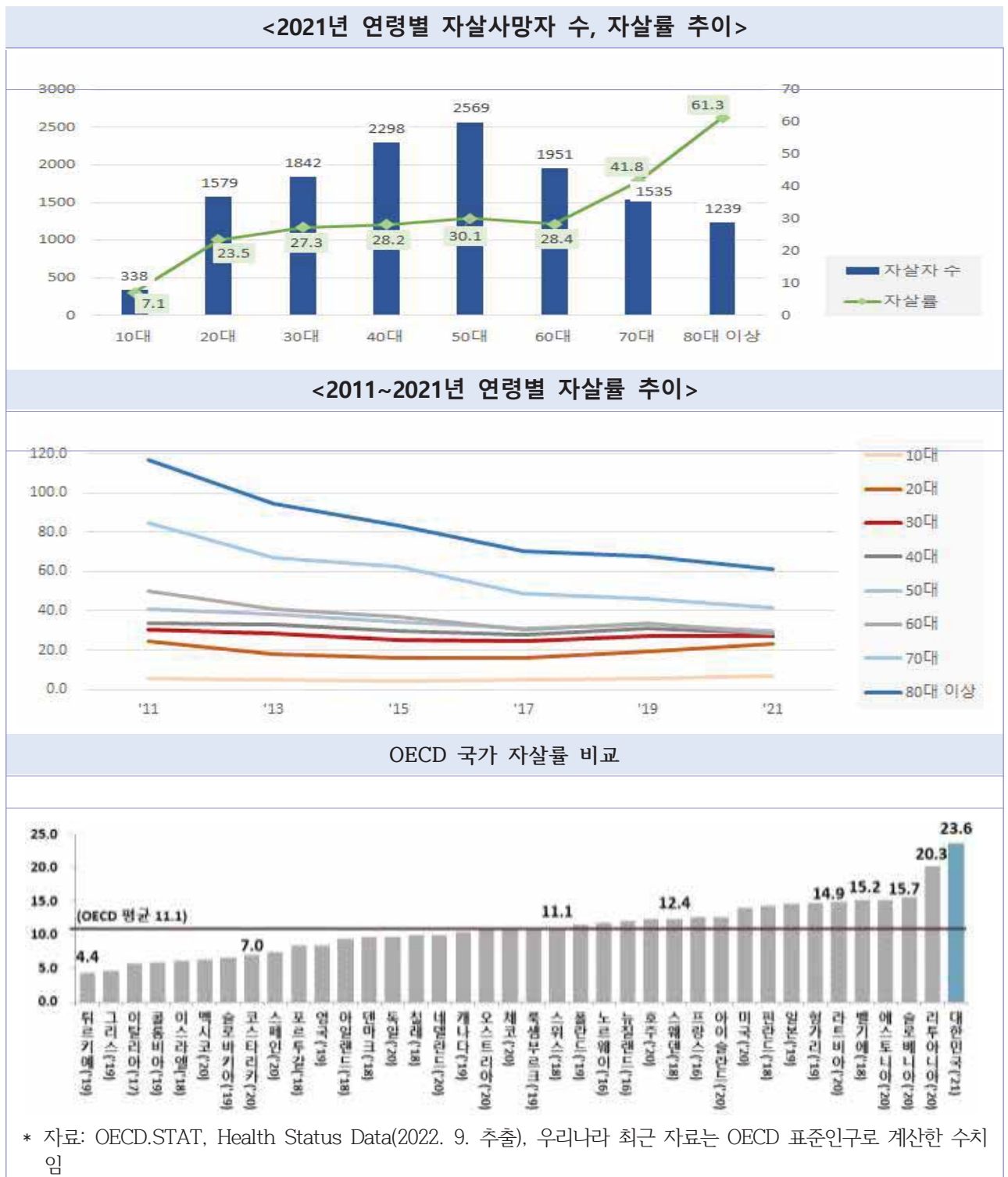
4. 코로나 이후 우리 나라의 정신건강 현황 및 관련 기본계획 비교 분석

1) 코로나 이후 우리 나라의 정신건강 현황⁶⁾

우리 나라의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 우울증·공황장애·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환자는 우울증(2019년 796,364명→2021년 910,785명) 8.7%, 공황장애(2019년 182,725명→2021년 221,131명) 12.6%, 불안장애(2019년 718,143명→2021 819,080명) 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자살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 코로나19 시기 전·후 자살사망자 수는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실정이나, 국가적 재난 시기에 따른 사회적 긴장·국민적 단합·재정지원 등으로 자살률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 2~3년 후 자살률이 반등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살사망자는 남성이 여성의 평균 2.2배 이상이며, 남성 자살률은 감소 추세, 여성 자살률은 소폭 증가 추세이다. 자살시도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2021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보고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의 51.1%가 40~60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자살률은 70대 이상이 61.3명으로 평균 자살률 2.4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OECD 연령 표준화 자살률⁷⁾ 산출 시 자살률 23.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된다.

6) 2023년 4월 발표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추진배경 중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현황을 중심으로 기술함

그림 7. 연령별 자살률 추이 및 OECD 국가자살률 비교



자살의 동기는 복합적이나, 주된 원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17.7%) 문제 순으로 알려져있다(2021년 경찰청 변사자료 자살

7) 국가 간 자살률 비교를 위해 국가별 연령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망 수준 차이를 보정한 값

통계). 코로나 이후 정신적 문제 증가하여 39.8%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생활 문제·육체적 질병 문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성별, 연령에 따라 자살의 동기는 다소 차이가 있어 여성의 경우, 전연령대에서 정신적 문제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의 경우 11세~30세는 정신적, 31세~60세는 경제적,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1위로 나타났다. 경제적 취약, 정신건강문제, 만성신체질환 여부는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7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

그림 8. 주요 자살동기별 비율(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소득에 따라 분석하면, 건강보험료 소득분위구간별 분석결과 자살사망발생률은 의료급여구간(43.5명)>하위구간(30.0명)>중위구간(24.6명)>상위구간(19.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사망자 중 정신질환 이력이 있었던 경우 56.2%(‘13~’17 연평균), 정신질환자 10만 명당 자살사망발생률로 평균 215.5명(전체 평균의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 중 만성신체질환 이력이 있었던 경우는 81.6%(‘13~’17 연평균)에 해당된다. 자살에 대한 사회적 접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자살수단에 있어 2012년 그라목손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한 판매취소 이후 농약중독으로 인한 자살은 감소, 자살수단에 대한 개입은 자살사망자 감소로 이어졌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명)에 있어 2009년 78.8명에서 2021년 42.2명으로 감소하는 변화가 있었다. 자살수단에 대한 개입은 자살예방을 위한 보편적으로 중요한 근거 기반 정책으로 수단에 대한 개입은 전체 자살률 감소로 이어지며(WHO., ‘14~’21), 자살수단 접근제한 시 자살시도를 지연시켜 충동이 지나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21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보고서(보건복지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자살시도자의 대부분(89.7%)이 순간의 충동으로 자살시도를 하며, 자살시도 후 생존한 사람들 중 약 90%는 그 이후로 자살로 사망하지 않거나(Owens et al., 2002), 이전에 시도했던 수단보다 치명적이지 않은 것으로 대체하는 경향(de Silva, Senanayake, Dias, & Hanwell, 2012)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노년층의 정신건강 이슈에 대해 초점화하면, 코로나팬데믹 이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심리정서지원대책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 지표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노년층의 자살률

은 국제적 수치 및 국내 평균치와 비교하여 2~3배 이상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에 따른 자살을 고려할 때 노년층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정신건강적 접근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육체적 질병 문제 및 만성신체질환 이력과 정신건강 및 자살 이슈가 밀접한 만큼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및 돌봄 지원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2) 관련 기본계획(자살예방기본계획,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비교 분석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과 관련한 정책적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밀접한 관련성이 높은 기본계획으로 자살예방기본계획,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계획,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계획을 선정하였다. 각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최초 수립시기, 수립 배경, 비전 및 특징 등을 비교·분석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자살예방기본계획,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계획의 비교

구분	자살예방기본계획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계획
법적 근거	자살예방법 제7조1항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의3, 자살예방법 제7조	고독사예방법 제6조	커뮤니티케어법(가칭) 추진중
기본계획 최초 수립시기	2004년 보건복지부 주도의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최초 수립	2016년 정신건강 종합대책(제1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12개 전략, 32개 정책 과제 제시)	2023년 5월 18일 제1차고독사예방기본계획 최초 수립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2004년 이전까지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국가적인 차원의 자살예방대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3년 OECD가입국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함에 따라 2004년 12월 자살예방 5개년 계획(2004~2008)을 수립함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2012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P 2010, 2020)에 정신건강이 포함된 바 있으나, 실행계획이 부재하여 계획 실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충분한 확충, 법령 개정 미흡으로 인해 WHO 권고기준에 맞춰 5개년 종합대책 수립	사회적 고립·단절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사망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고독사 문제가 지속저공로 증가하고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 수립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으로 두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을 추진하여 포용적 복지를 완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움
기본계획 수립주기	5년	5년	5년	
기본계획의 변천	2008년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제2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16년 정신건강 종합대책(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 3대 추진 전략과 10대 과제 및 20개 세부과제 2018년 자살예방국가행동 계획 발표: 6개 분야 54개 과제 2023년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발표	2016년 최초수립 후 2021년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수립	- 2023년 최초 수립	- 2018년 최초 수립하였으며,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공기반 구축 목표로 함
기본계획의 비전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2023년 발표-2018년 발표)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2021년 발표)	-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

구분	자살예방기본계획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계획
정책목표 /추진전략	- 생명안전망 구축 - 자살위험요인 감소 - 사후관리 강화 -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정신의료 서비스/인프라 선진화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추진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 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과제-1. 지역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 관련, 제도·서비스·전달체계 등 재구조화 추진 과제-2. 다양한 지역의료와 돌봄을 연계하고 검증·확산하기 위한 현장 리빙랩(Living Lab) 운영 과제-3. 커뮤니티케어 추진 제도적 기반 구축
기본계획 특징	범부처 차원의 5개년 종합대책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까지 30% 감소(‘21년 26.0명→’27년 18.2명) 목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 강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으로 자살예방 강화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 대폭 확대(20~70대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신체건강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 우울증 외 조현병·조울증 추가/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부터 신고·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 SNS 상담도 도입 -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상담, 치료비 등 집중 지원	범부처 차원의 5개년 종합대책 2016년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은 정책목표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폐해 최소화,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제시함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비롯해 중증 정신질환자, 중독 자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목표로 12개 전략, 32개 정책과제를 제시함	범부처 차원의 5개년 종합대책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1년, 1.06명→’27년, 0.85명)를 목표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지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 조사 실시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 모형개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 시범사업’ 확대,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 지방자치단체 통합 사례관리사 확충, 고독사정보시스템 구축, 독사정보시스템 구축,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 센터 지정,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매년 고독사실태파악	2018~2022년은 선도 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 단계, 2025년까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공기반 구축 단계, 2026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보편화 단계로 로드맵 구성(현 정부는 의료서비스 강화에 중점,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4대 핵심요소(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연계)를 중심으로 지자체 시범사업 진행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18.11월),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분야별 재가 서비스 지속 확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등 유사·분절적 사업 통합, 각 사업별 지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내 커뮤니티케어 연계 내용 반영 등 지속 추진

출처: 정순돌 외(2022)에서 제시된 표를 기반으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제1차 고독사예방기본계획 등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함

5.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관련 주요 쟁점

1) 노년층 정신건강의 심각성 및 지원의 필요성에 비하여 서비스의 질적, 양적 부족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은 상호연관적이며, 복잡하고 다요소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속적인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 면역 기능, 심혈관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약물 복용과 같은 위험한 습관에 탐닉할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불안, 편집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외로움은 자살 위험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iffin, 2010; 박민진, 김성아, 2022 재인용).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년층 정신건강사업 실행이 요구된다. 2023년 9월 21일 발표된 2022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23)에서 60대 이상의 자살률은 전체 평균 25.2명을 상회할 뿐 아니라 80세 이상의 자살률은 60.6명으로 평균의 2.4배에 달해 노년층의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년층의 자살률, 우울, 사회적 지지의 약화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신건강 정책 및 제도에서 노년층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및 증진사업들을 실행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업무지침에 있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에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가 우선하고 있어 지자체에 따라 노인정신건강을 위한 사업 실행이 양적, 질적으로 편차가 큰 편이다.

최근 이러한 제한점을 인식하여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청년마인드케어와 함께 2023년 노인정신건강 외래치료비지원사업인 ‘경기도 어르신마인드케어’로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위해 연 최대 36만원까지 정신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를 돕는 사업 등이 신설되는 등⁸⁾의 변화가 있다.

아울러, 수원시의 경우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자체 단위인 구별로 운영하지 않고, 생애주기 및 욕구별로 구분하여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일반시민 대상),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65세이상 노인 대상),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노년층의 정신건강 지원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초점화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울관리, 화병관리, 수면관리 프로그램 및 치매안심학교, 금메달사례관리 등 [질환군대상], 노인정신건강종합검진, 노인자살예방사업, 마음맺음프로그램, 화병클리닉 등 [고위험군대상], 효실천캠페인 111플러스 운동, 미소심기 캠페인, 노인정신건강관리장점 선포식 등 [정상군대상], 손마사지 약손봉사단, 가족프로그램/자조모임, 가족교육, 어르신환경지킴이 등 [가족/자원봉사대상] 사업을 전국 최초로 노인만을 대상으로 특화하여 운영중에 있다. 기초지자체(구) 단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약이나 지역별 특성이 제한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모든 지자체에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질적인 편차가 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노인정신건강사업을 고려할 때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에 있어 고립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필요

8) 노인우울치료비지원제도가 기존에 있었으나, 자살예방센터 등록 등을 필요로 요구하여 사업 실행에 제한점이 있었음

첫째,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내 공동체 및 사회적 지지 자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사례에서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 물품지원, 취업지원, 요금감면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44.3%)를 포함해 상당수(86.3%)가 각종 사회보장 지원을 받은 이력을 보유하였음에도 고독사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단순 지원 이상의 지역사회 내 사회적 지지 자원 및 공동체를 연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연령과 성별을 동시 고려하였을 때 50대 남성(27.0%) 및 60대 남성(25.8%)이 가장 큰 위기로, 50~60대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경우에는 60대, 70대 순으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고독사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2)에서 드러난 만큼 경제적 취약가구 발굴 중심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외에 고독사 특성을 반영한 발굴체계 구축 및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노년층에 개입하는 경우 고립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개입이 요구된다. ‘건물주도 못 피한 고독사…가난과 불화의 슬픈 고립’(임민정, 김혜민, 2022. 6.26.)의 기사와 같이 사회적 고립의 양상이 다양해진 만큼, 서울시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대응절차와 같이 거부 분석(거부 받아들이기, 단순거부와 적극적 거부 구분)->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기(모니터링 지속, 주변관계 활용)->최소한의 관계 유지(연락처 남기기, 간접적으로 만나기-메모, 문고리 대화, 홍보지 정기발송)->실질적 지원내용 개발하기(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 안내, 지속적 관심으로 라포형성)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층 중에는 1인 가구 외에도 장애 및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거나, 노인 학대 등으로 인하여 고립을 선택하는 사례들도 빈번한 만큼 이를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접근에 있어서 안전안부 확인 등에 AI 및 Io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을 제공되고 있고 나름의 성과를 가지고 있으나, 전통적인 방식의 사업 실행 및 홍보의 비중도 절대 줄여서는 안 될 것이다. 1인 가구의 비율이 느는 만큼 고립사 또한 늘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1차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중 추진과제로 자신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기’ 척도를 점검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고독사에 대한 경각심 강화 및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개선사업 등이 전개됨에 있어 온라인 중심의 홍보 및 배포는 노년층의 정보 소외로 인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통적인 홍보 및 접근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인의 디지털 정보화 유형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은 그룹의 평균연령이 후기 노인 연령에 해당되고, 여성이 72.1%를 차지했다는 점(김제희 외, 2022)에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정책적 접근 및 통계 현황에서 노년층(노인) 소외 고려 필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과거에 비하여 특정 세대/계층을 연대기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세대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으며, 그 어느 때보다 세대갈등의 이슈가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게 다뤄지는 시기이다.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서는 만19세부터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39세나 49세(울진, 보성 등)까지도 조례를 통해 청년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지원에 있어서는 장년층과 노년층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 연령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남게 된다. 노년층과 장년층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 범위 및 명칭에 대한 합의는 부재하지만, 관련 법령과 정부부서에서는 40~64세(통계청), 50~64세(고용노동부, e 나라도움), 55세 이상(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장년, 중년, 중장년, 신중년, 준고령자, 고령자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으며(장수미 외, 202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 나라도움)에서 제시한 생애주기 분류는 50세~64세를 장년, 65세 이상을 노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적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적용되나,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위험군 추정⁹⁾ 연구 용역(관계부처합동, 2023b) 등에서는 중장년을 40~60대, 노인을 7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고독사를 비롯한 사회적 고립 문제 접근에 있어 통계가 10년 단위로 구분, 발표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층을 50, 60대로, 노년층을 70대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슈에 따라 근거 법령 및 통계 생산 기준 등을 고려해 노년층의 연대기적 구분의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75세를 전후로 건강 기능 및 돌봄 욕구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65세 이상~74세 이하를 전기노인, 75세 이상을 후기 노인으로 구분하여 정책적, 실천적 접근에 있어 섬세한 지원이 요구되며, 노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세대별 구분에 있어 60대를 장년층과 노년층 중 어느 쪽으로 구분할 것인지의 기준 및 이해에 대한 논의 및 환기가 요구된다.

2023년 4월 발표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신체건강과 동일하게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마다로 변경하고, 우울증 외 조현병, 조울증도 추가한다고 하나, 이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이 우려된다. 사회적으로 노년층은 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다른 세대(청년층 및 중년층)에 비하여 복지제도에 편입된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고립 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나, 실제 2021년 고독사 현황 분석에서 60대 이상이 38.8%를 차지하고(보건복지부, 2022) 제1차 고독사예방기본계획수립연구(정순돌 외, 2022)의 고독사 고위험군 위험기준 적용시 나타난 고독사 고위험군의 비율을

9) 통계청 통계승인 과정에서 유사 통계(연령별 1인 가구 수 및 사망자 수)가 10세 단위로 산출 중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 분석을 위하여 고독사 통계도 10세 단위로 산출되었다고 밝힘

고려할 때도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측면에서 노년층이 사회적 환기 및 정책적 이슈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살아갈 힘

시바타 도요¹⁰⁾

나이 아흔을 넘기며 맞는
하루하루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뺨을 어루만지는 바람
친구에게 걸려 오는 안부전화
집까지 찾아와 주는 사람들

제각각 모두 나에게
살아갈 힘을 선물하네

10) 초등학교 졸업 학력에 평생 여관 보조, 재봉 일을 해온 가난한 여성이었던 시바타 도요 (1911~2013)는 92세에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해 99세가 되던 2010년 첫 시집을 펴냈으며, 일본에서 시집으로는 최초로 150만부 이상이 판매되는 등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살아갈 힘은 약해지지마 1 (시바타 도요, 2010)에 수록되어 있음

참고문헌

- 고숙자, 이아영, 황남희, 장익현, 안영, 정영호(2021),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 세종:보건복지부.
- 관계부처합동(2023a).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 관계부처합동(2023b). 제1차 고독사예방기본계획('23~'27).
- 김제희, 하석철, 황남희(2022). 인천시 노인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및 지원방안.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 김춘남·박승민·박승희·김서인(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복지 재단.
- 임민정, 김혜민(2022. 6. 26.). 건물주도 못 피한 고독사...가난과 불화의 슬픈 '고립'.
- CBS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777120> (2023. 8.30. 인출). 박민진, 김성아(2022). 1인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과 유형: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2(4). pp.127-141.
- 박선희·최영화. (2019).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 대안적 정의와 정책방향 -. 부산복지개발원.
- 방혜선, 박봉선, 배은경, 장수미(2022). 청주시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고위험군 심층조사 연구. 청주복지재단.
- 배은경, 정순돌, 유재연, 이하진(20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연구: 델파이 기법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3(2), 169-191.
- 배은경, 용태희(2023). 전라남도 고독사 실태 및 예방방안 연구. 전남사회서비스원.
- 송인주(2016).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복지재단. 이상철·조준영. (2017).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61-86.
- 이태진, 김동진, 박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2022).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 (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 소.
- 이태진, 우선희, 김지원(2023). 코로나 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 보건복지포럼, 2023(9), 6-21.
- 정순돌, 배은경, 유재연, 조미정(2022).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정신영, 백재영(2023. 4. 25.). '생수 한병 사다 주세요' 무연고 이씨의 마지막 문자.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97622&code=61121111&c p=nv>. (2023. 8.30. 인출).
- 채숙향 역(시바타 도요, 2010). 약해지지마 1. 지식여행.
- 최윤주, 전예비, 신예림, 이수비(2023). 신문에 보도된 고독사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12년~2022년 기사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사회복지, 51(1), 117-144.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통계청(2022a).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22b).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22C). 2022년 사회조사. 대전: 통계청. 통계청(2023).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대전: 통계청.
- OECD(2022). Better Life Index 2022

[토 론 문]

김 기 주 부회장
요양병원협회

1. 노년층 사회적 역할 증대

- A. 노인 일자리 증가
- B. 노인의 가족돌봄과 사회참여

2. 노인 건강증진

- C.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간 격차 감소
- D. 예방과 조기 검진 및 치료

3. 비대면/디지털 기술 도입

가파른 고령화 진행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은 노년층에서 우울, 불안, 정서적 고립 등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있었고 이는 직업이 없거나 1인 가구인 노년층에서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노년층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 증대이다.

노년층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서 먼저 논의할 내용은 노인 일자리 증가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처럼 일자리를 가진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는 노인에 대비하여 더 높은 소득수준을 가질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건강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온다. 일자리는 행복을 위한 요건으로 불리는 3요소 중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 이라는 요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추후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단순히 사회적 부담이 아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라도, 부족해질 노동인구시장에서 노동인구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일할 수 있는 노인의 근로는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 (43.4%)과 낮은 소득대체율 (42.5%)도 노인의 노동 필요성 원인이기도 하다. 중장년층이나 청년층 대비하여 노동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산업재해 기준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하다. 인센티브가 꼭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분야에서의 발주에서 우선권, 세무조사 면제/유예, 세제 혜택 확대, 퇴직금 면제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건강 상태 상 각종 질병과 상해의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근로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를 모두 산업재해로 처리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노인을 근로자로 쓰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인 입장에서라도 충분히 자기 몫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 여건은 유지될 수 있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노인 근로자에 대한 IT 등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에서 노동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또한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인의 가족돌봄과 사회참여 또한 노인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필요하다. 여러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 수행은 우울감 감소,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등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 돌봄 수당도 노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 결과 중 하나이다. 종교시설이나 보육원, 봉사단체 등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도 사회적으로나 노인의 역할에서 중요한 면이 될 수 있다. 양로원, 커뮤니티 케어 등에서도 조금 더 상태가 나은 노인 분이 좀 더 일상 생활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들 서로 도와드리는 모습들도 도움을 드리는 어르신에게도 도움을 받는 노인에게도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노년층의 건강증진이다.

2019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3세로 건강수명 73.1세와 약 10.2년간 차이로 보인다. 건강하지 못한 10.2년의 세월 동안 우울 등 정신건강 악화는 필연적이다. 그리고 2030년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초로 90세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방안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아픈, 장애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가고 이는 돌봄/의료 비용의 상승과 정신건강 악화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기 질환에 대한 관리가 잘되는 국내에서 건강수명 연장 방안은 비용부담이 적은 예방이 우선해야 하며 신체활동 증가, 금연, 절주, 좋은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수면위생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인에서 핸드폰 등을 활용하여 일정 수준의 운동량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료 인하, 담뱃세/주세 증가, 노인 영양교육, 설당세 도입 등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 등이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를 유발하는 질병에 대한 조기 검진 및 치료도 같이 필요하다. 비장애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매해 시행, 주기적인 인지기능, 정신건강, 노쇠 평가 등을 통해 빠른 진단 및 조기 치료가 병행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기간을 늘려줄 것이다. 장애로 인한 돌봄이나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된 경우에 빨리 치료하여 일상생활로 돌려보내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의 수가 개정과 의료기능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전체 의료돌봄비용 감소와 장애 노인의 일상생활 능력 향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의료연구소의 설립도 국가에서 전체적인 노인 의료정책의 기본 자료수집이나 정책 방향 결정에서 합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셋째, 비대면/디지털 기술 도입이다.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큰 1인 가구 노인, 돌봄을 요하는 노인, 치매/정신질환/장애 노인 등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돌봄은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1차적으로 관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도 네이버, SKT, KT 등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노인 돌봄 산업에 뛰어들었고 지자체/관공서 등과 협업하여 독거노인들에게 돌봄과 대화 등에서 기여하고 있다. 추후 핵가족화 시대에 돌봄 인력이 부족하고 돌봄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가 노인과 대화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노인을 해당 지역 관공서나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낮은 비용으로 관련 산업도 육성하면서 노인 돌봄/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2023년 3월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나온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경제성 평가 연구’에서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편익 비용 비율이 3.2로 방문 건강관리사업(2.3)보다 경제성도 우수한 것으로 나오기도 하였다.

다른 의료분야와 달리 상담과 심리지원에 특화된 정신건강 관리는 비대면 진료에 적합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으로 대면 서비스 이용에 심리적인 장벽을 지닌 사람들도 비대면 진료는 이용 비율이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내 낮은 정신건강 분야인력수(10만 명당 30.6명, OECD 평균의 1/3가량, 2017년 기준)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22.2%), 정신과 질환자에 대한 편견 등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 유사 분야 보건의료 인력의 정신건강 분야 교육 후 정신건강 분야 업무투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토 론 문]

서 희 경 시의원
성남시의회

사회적 재난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노인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

재난 상황에서 돌봄의 공백

모든 사람의 생애주기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시기를 포함하고 있다. ‘돌봄을 받는 것’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로 혼인과 혈연 등으로 결합된 집단이라는 점에서 돌봄은 자연스럽게 가족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해체,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는 돌봄과 사회적 관계 형성·유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인 가구 증가는 사회적 고립의 위험 계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 계층이 질병, 실업, 노령, 결핍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면 사회적 관계 위기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추세가 지속되면서 영유아, 아동, 노인에 대한 돌봄을 담당하는 기관과 관련 제도가 중단되며 치명적인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였고, 돌봄 공백이 실업과 소득 중단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건강 불평등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불평등’ 중 주목해야 할 문제는 재난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노인집단 내에서도 더 취약한 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노인집단의 우울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거노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염려,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 비율이 비독거노인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 우울의 주요 원인으로 과거 우울 경험,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 상태, 미충족 의료, 연령, 성별, 교육수준, 일상생활 변화,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유형,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트레스 자가관리, 심리상담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과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같은 중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일차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성남시 노인 복지 정책

성남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는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등 8개의 수행기관에서 생활지원사가 3,995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생활지원사 1명당 12명 어르신 담당).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등의 안전지원,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의 사회참여, 신체·정신 건강분야의 생활교육, 이동활동지원 등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 연계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제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분당구 야탑동 권00 어르신은 2020년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던 대상자로 간헐적 폭음과 단주를 반복하던 중 생활지원사의 의뢰로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알코올중독 모니터링 교육을 받았다. 이후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2년간 한 달에 한 번 방문하여 지속 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초기보다 어르신의 알코올중독 양상이 호전되어 건강한 삶의 살아가고 있다.

이어 분당구 구미동 김00 어르신은 2021년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던 대상자로 신경정신과 진료 후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지원사의 관찰 결과 불면증, 우울증 등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심리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게 되었다. 이후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담당자가 주 1회씩 10개월간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증상이 호전되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등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며,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남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14명의 응급관리요원이 4,167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자동 신고를 통한 신속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성남시 생활지원사의 지속적인 안전 확인으로 위험에 처한 어르신을 조기 발견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3.09.18.(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에 홀로 거주하는 41년생 어르신의 안전확인 차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였으나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고 전화해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생활지원사는 센터와 즉시 통화하여 활동감지 기록 확인 결과 외출 기록이 없어 보호자와 연락을 하고 어르신과 관계된 곳에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우유 투입구로 어르신을 불러보니 희미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 즉시 119에 신고하였다. 이에 119대원이 현장 출동하여 자택 베란다 쪽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발견하고 차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머리 쪽 출혈이 의심되어 CT 검사 시행 후 입원 치료를 통한 건강을 회복 중이다.

아울러 우리시는 ‘노인 자살예방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은 타 연령층 대비 자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성남시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우울을 조기 발견하고자 비대면 말벗 서비스와 같은 심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트레칭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 인문강의나 음악 등 문화프로그램, 개별 심리상담 및 치료 서비스 등을 연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 ‘디지털 기기 역량 강화 교육’ 결과를 소개한다.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디지털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교육참여자를 모집하였고, 기초교육 430명, 심화 교육 30명이 수료하였다. 또한 영화관 키오스크 예매 및 간식 구매 현장 체험형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 사후 평가 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은행 업무, 중고거래, 영상 시청, 자녀들과 단체 카톡방에 참여하게 되어 실질적인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고 만족한다는 후기를 접할 수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다 잘 활용하고 싶다는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방역용품 구매 지원, 반찬 배달, 도시락 지원 등 실질적인 가구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노년층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돌봄 공백과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경험하였다.

앞으로 성남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노인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돌봄 책임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다.

[토 론 문]

윤 미 정 상임팀장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성남시자살예방센터

1. 노년층 사회적고립 예방 및 노년층 정신건강의 필요성이 크다.

생애주기별에서 노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신체적 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에 이환 되고, 배우자와의 사별 및 사회적 지지의 결핍 등의 생활 사건이 생기면 우울감에 취약해지기 쉽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병 자체로 인한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환자, 접촉자의 격리로 인해 불안,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노인층에게는 더욱 악영향을 미쳤다.

노년층은 팬데믹 이후 가족 간 교류가 줄어들면서 건강에 위협을 가장 많이 입은 연령대이다. 가족 간 만남의 어려움, 종교단체, 노인정,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서로 간의 소통이 부재 등 지역사회 연결고리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들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해 노년층의 우울증 발병 위험이 2배 넘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2년 대규모 전향적 코호트 연구인 한국인의 인지 노화와 치매에 관한 전향적 연구(KLOSCAD)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노년기 우울증의 발병 위험이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우울증 병력이 전혀 없던 노인도 우울증 발병 위험이 2.4배 증가했다. 사회적 고립감과 함께 신체 질환으로 인해 노년층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므로 가족들의 관심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심리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성남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19 감염증 고위험군인 노인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포함한 정신건강의 어려움 지속됨에 따라, 우울 고위험군 독거노인 및 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2022년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성남시 60세 이상 노인자살 사망자 수는 63명으로 성남시 전체 자살사망자 수 177명의 35.6%를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12명(16%) 감소하였다. 이에 노인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가 필요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정신건강 현황,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및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과 노인 정신건강 계획을 알아본다.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장애의 1년 유병률은 남자의 경우 60대(2.1%), 여자는 70대(5.4%)에서 높았음. 남자(1.9%)와 여자(4.4%) 모두 이혼/별거/사별일 경우 높은 우울장애 1년 유병률을 보였다.

결과표 19. 우울장애* 사회인구학적 분포(1년 유병률)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유병률(%)	RSE	유병률(%)	RSE	유병률(%)	RSE
연령군(만)						
18~29세	1.4	32.3	1.3	42.9	1.6	47.5
30~39세	1.5	29.8	0.5	71.0	2.5	33.0
40~49세	1.5	32.3	0.7	40.4	2.3	40.0
50~59세	1.8	24.5	1.3	50.2	2.4	26.4
60~69세	1.8	28.2	2.1	33.6	1.6	36.4
70~79세	3.1	33.1	0.3	100.0	5.4	34.0
결혼상태						
기혼/사실혼/동거	1.6	16.7	1.0	28.4	2.3	19.1
이혼/별거/사별	3.5	25.7	1.9	50.7	4.4	29.1
미혼	1.3	26.5	1.1	34.0	1.6	41.0
교육						
중졸 이하	2.1	27.9	0.9	50.8	2.8	31.3
고졸	2.0	18.4	1.5	28.0	2.4	22.6
대졸 이상	1.4	22.2	0.8	33.4	2.2	28.0
취업상태						
정규직	0.6	27.0	0.5	42.6	0.9	34.3
비정규직	2.0	23.8	1.3	40.6	2.7	29.1
무직/학생/주부	3.5	17.3	3.0	27.1	3.8	21.2
거주지역						
동	1.9	13.7	1.0	22.7	2.8	16.3
읍면	1.2	32.3	1.5	42.2	0.9	51.8
소득수준(원/월)						
기준종위소득 미만	2.0	17.1	1.5	23.9	2.6	22.3
기준종위소득 이상	1.5	19.2	0.8	34.5	2.2	22.3
전체	1.7	12.7	1.1	20.1	2.4	15.6

* 21년도 조사 항목에서는 양극성장애 항목이 제외되어, 주요우울장애와 기분부전장애를 합친 진단군을 우울장애라고 구분함

- RSE(Relative Standard Error) : 상대 표준 오차

주요우울장애의 1년 유병률은 남자의 경우 60대(1.9%), 여자는 70대(5.4%)에서 높았음. 남자의 경우 고졸(1.5%), 여자의 경우 중졸 이하(2.8%)일 때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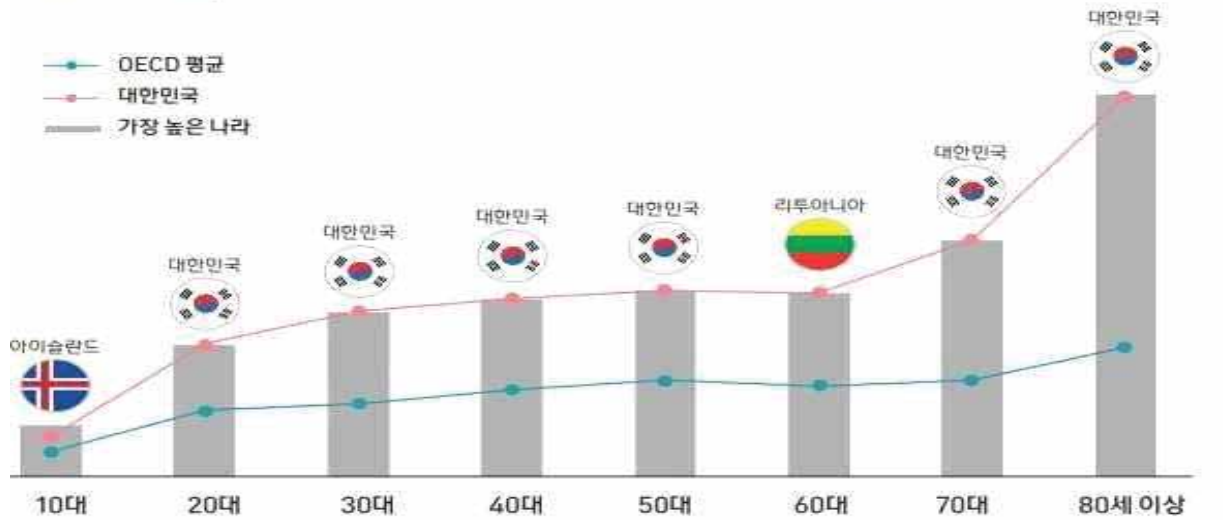
결과표 20. 주요우울장애 사회인구학적 분포(1년 유병률)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유병률(%)	RSE	유병률(%)	RSE	유병률(%)	RSE
연령군(만)						
18~29세	1.4	32.3	1.3	42.9	1.6	47.5
30~39세	1.5	29.8	0.5	71.0	2.5	33.0
40~49세	1.5	32.3	0.7	40.4	2.3	40.0
50~59세	1.8	24.5	1.3	50.2	2.4	26.4
60~69세	1.7	29.2	1.9	35.6	1.6	36.4
70~79세	3.1	33.1	0.3	100.0	5.4	34.0
결혼상태						
기혼/사실혼/동거	1.6	16.9	0.9	29.5	2.3	19.1
이혼/별거/사별	3.5	25.7	1.9	50.7	4.4	29.1
미혼	1.3	26.5	1.1	34.0	1.6	41.0
교육						
중졸 이하	2.0	28.9	0.6	58.6	2.8	31.3
고졸	2.0	18.4	1.5	28.0	2.4	22.6
대졸 이상	1.4	22.2	0.8	33.4	2.2	28.0
취업상태						
정규직	0.6	27.0	0.5	42.6	0.9	34.3
비정규직	1.9	24.5	1.1	44.2	2.7	29.1
무직/학생/주부	3.5	17.3	3.0	27.1	3.8	21.2
거주지역						
동	1.9	13.7	1.0	22.7	2.8	16.3
읍면	1.1	34.0	1.3	45.8	0.9	51.8
소득수준(원/월)						
기준종위소득 미만	2.0	17.3	1.4	24.6	2.6	22.3
기준종위소득 이상	1.5	19.2	0.8	34.5	2.2	22.3
전체	1.7	12.8	1.1	20.5	2.4	15.6

- RSE(Relative Standard Error) : 상대 표준 오차

OECD 회원국 연령별 자살률

20대~50대, 70대~80세 이상 자살률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음



[출처 : WHO의 2023 Mortality database를 활용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산출]

우리나라 노인(65세이상) 자살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노인 자살률은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감소 후 2021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자살의 동기는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남·여 모두 정신적 문제 1위이며,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1위를 차지하였다. (2023년 자살 예방백서)

위와 같은 통계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정신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 제2차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2021-2025)의 세부추진과제에서 생애주기별 활동 특성과 연계한 정신건강을 위해 요인 관리 강화하였다.

(1) 노인

- ① 대상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 노인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발견·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정신건강 교육 제공 지원 및 노인 대상 심리지원 확충

(2) 취약노인

- ① 고립·우울 고위험 취약노인 대상으로 정서 지원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특화서비스 운영
- ② 특화서비스를 통해 은둔·우울 노인 대상 상담, 위기개입 지원, 자조 모임 등 우울감 완화 프로그램 제공

2) 제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의 자살 예방 추진과제에서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중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자살예방 사업을 시행하였다.

(1) 노인

- ①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자 생명지킴이 교육 강화 및 심리서비스 접근 어려운 농어촌 거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 특화서비스로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자살예방
 - 개별 사례관리, 집단활동(집단프로그램, 집단치료, 자조모임, 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우울증 진단 및 투약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서비스 등 제공
- (2) 독거노인 및 치매 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종사자, 노인대상서비스 제공자의 생명지킴이 교육 강화
- (3) 농어촌 노인자살예방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안심버스운영 활성화

3.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성남시자살예방센터 사회적고립 예방 및 노년층 정신건강사업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기본계획과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노년층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대상 맞춤형 상담,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선별검사(대면·비대면)를 통하여 스트레스, 우울, 자살 척도지를 가지고 검사하여 고위험군 발굴 및 조기개입을 하고, 우울증 진단 및 자살고위험군은 센터 서비스가 필요하고 본인이 동의로 센터에 등록하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지역사회 공공·민관기관들과 협약을 통하여 60세 이상 노년층 정신건강 문제 발생 및 도움 필요시 의뢰, 연계하도록 하였다. 2021년, 2022년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의 제안으로 노년층 워크북을 개발하고 제작하여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하여 생활관리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직원들이 1:1 마음건강전화상담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부분 마음건강검사(스트레스, 우울, 자살척도)결과 사전과 비교하여 사후가 감소하였다.

그 외에 “마음검사를 하면서 질문에 답할 때 나의 상황을 점검 할 수 있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걸 알았다”, “상담전화 받고 난 후, 날 위해 들어주고 나의 편이 생긴 것 같아서 든든했다”는 평가들이 있었고, 사회적고립 속에서 정신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건강에 취약한 60세 이상 노년층에게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어르신마인드케어 지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32-39로 진단받은 경우 연36만원 지원을 통해 조기치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노인 자살 고위험군으로 자살예방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자살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기상황시 위기중재를 통하여 약물관리 및 증상관리를 하고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였다. 노년층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탐색 및 네트워크를 하고

유관기관 감담회 및 고위험군 대상자 개입방안 논의를 통하여 다각도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고 개입하였다.

2015~2022년까지 차의과학대학교 메디키퍼 동아리, 2023년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자원 봉사 동아리인 지역자원들과 협업하여 독거노인 반려가족만들기 프로그램을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진행 하였다.

독거노인 반려가족만들기를 통하여 자살위험신호 파악, 말벗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자살위험 신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적지원을 하였다. 다양한 노인 자살예방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노년층의 정신건강을 지원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평가로는 “자식들도 자주 연락할 수 없는데 얼굴 한번 본적 없는 학생들이 전화로 시가는 챙겨 먹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걱정해주는 것이 고맙다”, “청년들 사는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좀 젊어지는 것 같다”, “마음이 편하고 이야기할 곳이 있다는 것이 좋다”등의 평가가 있었다.

또한 노인우울증, 노인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개입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 종사자들에 게이트키퍼 교육을 시행하였고, 지역사회내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도록 하여 의뢰.연계 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관계망을 형성하였다.

4. 노년층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서로 협치하는 지역사회 역할이 중요하다.

노년기 우울증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잘 관리하고 치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규칙적인 생활습관의 유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를 유지하는 것이 특히나 노년층에게는 더 어려워졌다. 가까운 공원에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되며, 복지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 지역사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노인보건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 및 사례관리 서비스도 도움이 된다.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협치를 통하여 공공,민간기관들과 협업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 내 노년층이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역자원 이용을 통하여 스스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지속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고립감이나 외로움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토 론 문]

신 명 희 과장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 사회를 넘어 20% 이상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더불어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는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한다. 한 사회의 노년에 대한 시선은 노인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우리 사회가 갖는 노년에 대한 시선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사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 시간 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 특히나 노인들에게 더 가혹했다. 사회적 격리로 인한 고립은 단순한 일상을 넘어 사회적 단절과 고립으로 이어졌다.

이번 [코로나 이후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코로나 이후 더욱 힘들어진 노년의 삶을 고민하고 점검해 봄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희망적이다.

사회적 단절과 고립의 위험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이 전면 폐쇄되었을 때, 어르신들은 물론 직원들도 매우 당황하고 힘든 시간이었다. 매일 2천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복지관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의 돌봄과 교육을 통한 삶의 활력을 가져갔던 분들이 갑작스러운 단절로 원하지 않는 고립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앞이 캄캄했었다.

사회복지 현장은 대부분 대면 서비스이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 휴머니즘인데, 매일 만남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회복지사도, 매일 일상의 삶터이며, 일터, 때로는 놀이터,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깊게 자리 잡은 노인복지관을 이용 못하는 어르신들 또한 갑작스러운 단절에 당황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삶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바꿔놓았을 뿐 안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는 사회적 단절과 우울감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었다. 특히나 우리 사회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이 1위이다. 사회적 격리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나아가 노인의 우울감 증가로

연결되기에 현장의 고민과 걱정은 더욱 커졌다. 코로나가 끝난 요즘, 점심시간에 경로식당에 내려가면, 코로나 이전에 뵈었던 어르신들이 아닌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마주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 패키지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고립 인구 규모는 약 280만 명으로 추정된다. 고립 인구는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체계가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통합위는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악화 문제로 연결돼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고립·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취약성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통합위의 판단이다. 이에 통합위는 “고립·은둔의 규모, 원인 및 지속 기간 등의 파악을 위해 주기적인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23.9.6..ChosunBiz)

노인복지관의 디지로그(Digilog)화

디지로그(Digilog)는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적 정서가 결합한 제품과 서비스, 또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변혁기에 있는 세대를 말한다.

코로나19 직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노인복지관이 디지로그화 되는 과정이었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와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 및 확대가 그 중요한 변화였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기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사업 중심으로 진행된 경험이 많지만, 그에 비해 비대면 서비스는 생소한 부분이었다. 사회적 격리로 인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기관에서는 방법을 모색해야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비상상황에서 즉시, 대면 사업 TFT와 비대면 사업 TFT로 전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다. 초기 복지관이 전면 폐쇄였기에, 어르신들과 시간대별 약속을 통해 복지관 앞마당에서 한 명씩 개별 만남을 가져갔다.

일상생활에 대한 안부 확인과 함께 온라인 줌(Zoom) 교육을 1:1로 진행하고,

핸드폰에 줌을 깔아드렸다. 500여 명을 일주일간, 한 달여간 몇천 명을 만나며, 복지관은 동시에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가능한 프로그램을 온라인 줌을 통해 개설하였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들과의 1:1 만남과 교육을 통해 점점 온라인 줌을 통한 교육과 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

복지관은 서둘러 온라인 복지관을 오픈하고,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나갔다. 또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자 ‘스마트 이음’을 만들어 상식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정보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온라인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줌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복지관 시스템도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 및 활동이 가능한 형태로 변화를 만들어 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대면 서비스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늘리는 활동을 추가해 갔다. 특히나 혼자 계신 어르신들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활동키트(식물 키우기, 콩나물 키우기,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활동의 결과를 나누는 과정을 이어갔다. 독거남성 어르신들을 중심으로는 요리 활동 키트를 제공해서 가정에서 음식을 직접 해 먹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상을 통한 레시피 제공은 물론 어르신들의 활동 결과를 영상과 사진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담사업에서는 상식적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고, 상담사가 어르신 가정들을 직접 방문하는가 하면, 가정에서 집중해서 활동할 수 있는 미술 활동 키트를 드리고, 일주일 단위로 만남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강수첩과 밴드 등, 운동 키트를 통해 가정에서도 작은 운동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복지관에서 나눠드린 대체식을 잘 드시는지, 혼자 계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위생안내와 대체식 식사에 대한 재안내 등을 하면서 독거 어르신의 식사를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챙겨나갔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독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만남과 다양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어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때마침 복지관에서 콩나물 키우기 키트를 주어서 재미있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 먹던 옛날 생각도 나고, 나의 정성과 관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콩나물을 보니 자식들 키웠던 생각도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안00 어르신)

코로나19로 바깥출입이 어려운데 복지관에서 이렇게 즐거운 미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어 신청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는데 같은 미술이어도 이렇게 다른 작품이 나왔네요. 미술로 아내와 이야기도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00어르신)

복지관에서 나눠주신 건강키트, 집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밴드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다리 쥐가 나고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이 운동을 하다 보니 지금은 운동도 2번 하면 힘들었던 것이 10번 해도 힘들지 않고 거뜰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자 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엔 역시 운동이 최고인 것 같네요. 모두 힘냅시다! (최00 어르신)

복지관에서 코로나 극복 키트라며, 코로나로 매일 집에만 있는 나에게 콩나물 재배기를 줬다. 예전에는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 먹었는데 어느 순간 사서 먹는 것이 익숙해졌었다.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힘들었던 차에 잘됐다 싶어 받은 날 바로 콩을 불리고 물을 줬다. 하루에 4번씩은 물을 넣어주고 잘 자라라고 말도 해주었다. 늘 상 똑같았던 하루였는데, 콩나물을 키운다고 그래도 시간도 잘 가고 기분도 좋았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났다. 콩나물을 빨리 자랐다. 키운 지 5일 만에 제법 많이 자라 무쳐도 보고 남은 건 옆집과도 나눴다. 집에 있는 콩으로도 계속 콩나물을 키워봐야겠다. (최00 어르신)

매일 물과 햇볕, 바람 골고루 흡수해 가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영양 듬뿍 들어간 흙과 함께 심었더니 뿌리를 튼튼이 잘 내린 것 같아요. 대파는 기다란 순을 정리 해 주었어요. 새 생명들이 자라고 있는 걸 보면 힘이 솟아나요. 텃밭에 심을까 하다가 눈뜨면 바로 보려고 거실 앞마당에 심었어요. 상추 잘 길러서 복지관 나가는 날 가져갈게요. 봄맞이 새싹들을 키우는 키트를 선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00 어르신)

" 예쁘구나!" 하는 대화와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강00 어르신)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에 대한 노인복지관의 역할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 36조에 따라 노인 여가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6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하는 노인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은 예방, 보호, 통합이라는 3개 기능과 6대 사업, 즉, 1) 상담사업,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사업, 3) 건강생활 지원사업, 4) 노년 사회화 교육사업, 5)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업, 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 재가 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노인복지관은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나아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및 사회참여 등 사회적 역할을 통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노인의 건강과 문화 여가, 지역사회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 개인의 건강한 삶! 활기차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지원함은 물론 지역사회 안에서 존중받는 노년! 희망적인 노년의 삶을 위해 고민하며 함께 해오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나 3년 정도 가정에서만 지냈던 어르신들은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거나, 쇠약해진 모습으로 만났을 때, 노인복지 현장의 우려와 걱정은 더 깊어졌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노년층의 건강한 삶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코로나가 끝난 직후 어르신들의 염려와 걱정은 직원들 못지않았다. 방역과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매우 높아져서, 또한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복지관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다.

최근 ‘건강오락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로 서서히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걷기 교육과 동네 산책 스탬프 투어, 마을 탐방, 신체활동을 접목한 인지 지원 프로그램 등 집안에서 집 밖으로, 마을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활동이 혼자에서 친구와 동료와 함께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과 지역사회를 잇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마을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지역 속에서 의미를 찾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은 복지관 내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장의 고민을 중심으로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에 노인복지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를 동시에 지속해야 한다. 현재 성남시 6곳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맞춤형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 안부 확인은 물론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함께하고 있다. 맞춤형돌봄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복지관 서비스 등과 연계되기에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예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작은 토대를 마련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거주해야 하는 어르신들은 급격히 변화된 온라인 문화와 키오스크로 어려움을 호소하신다.

이미 복지관 내 카페나 프로그램 예약 등 키오스크가 곳곳에 있지만, 지속해서 온라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과 활동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오랫동안 진행해온 사례관리와 상담의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과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동주민센터 및 지역사회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사례관리와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자원을 연계한다면, 많은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거점으로서 자원을 조직하고 연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사례관리사업 속에서, 지역복지를 통한 지역네트워크 사업 속에서도 그렇다. 기존의 자원에 대한 점검은 물론 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자원을 점검하고 조직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도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나, 노인자원봉사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의미 있는 노년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형석(104세)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늙지 않는 비결을 묻는 아나운서에게 답하기를 ‘공동체에 참여하면’ 늙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노년에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 사회적 역할을 높여나갈 때, 사회적 고립 예방은 물론 보다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관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 어르신을 잇는 역할을 통해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 이후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각 현장에서 고민하는 내용들을 나누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성남시 노년층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연계망을 살피고 점검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토 론 문]

남 현 주 교수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 성남시를 중심으로 -

○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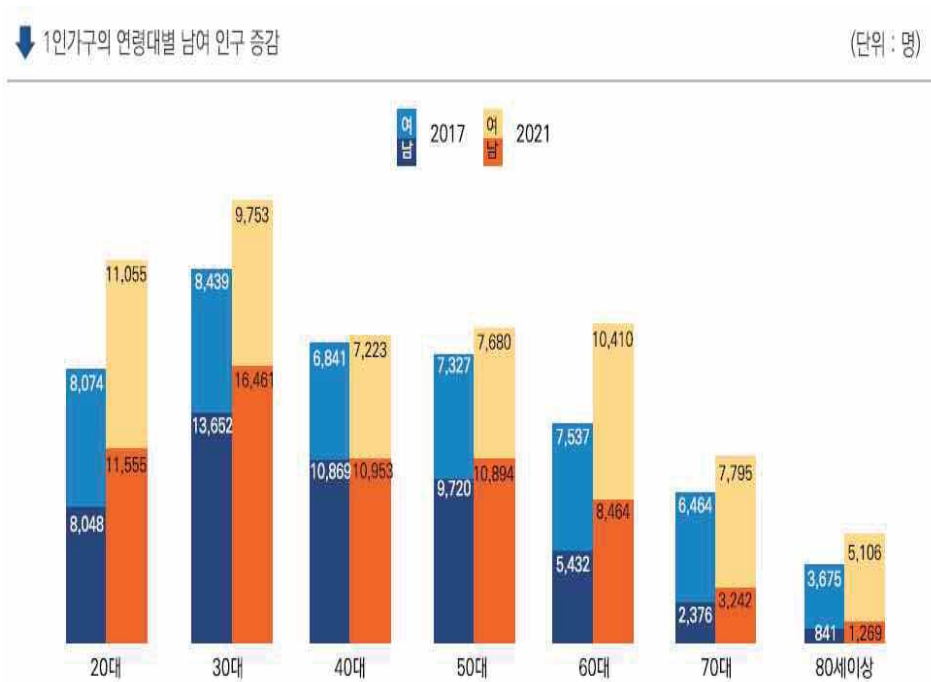
-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6%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40년에는 이 비율이 40.5%를 넘길 전망이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인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음
- 발제자는 노년층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고립과 단절의 심각성을 확인한 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개념을 정리함. 정신건강과 관련된 자살 예방 기본계획,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계획을 비전, 정책 목표, 추진전략, 특징 등 여러 기준을 두고 비교·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방향과 거시적 전략을 확인함. 이어서 수원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한 방안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안함
- 토론자는 발제자의 논의 내용에 공감하며 정책적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함. 이번 세미나가 성남시에서 개최됨을 감안하여 본 토론에서는 성남시 노인 인구와 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적 고립 예방’과 관련하여 성남시가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나아갈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임하고자 함

○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1인 가구

- 2022년 성남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성남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8,091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4%이며,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84.4%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전체 9.6% 대비 60세 이상 인구는 15.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음
- 2021년 성남시 1인 가구는 122,461가구로 2017년 대비 22.6%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1인 가구가 26,241로 전체 1인 가구의 21.4%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20대 22,610가구(18.5%), 60대 18,874가구(15.4%) 순으로 나타남. 20~50대 1인 가구의

비율은 남자가 더 많았으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 성남시 1인 가구는 2020년에 이미 전체 가구의 31%를 넘었으며, 이 비중은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사료 됨

<그림 1> 성남시 연령대별 1인 가구



자료: 2022년 성남시 사회조사 보고서, 2022: 17.

- 1인 가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32.7%, 외로움 17.8%, 경제적 어려움 15.6% 순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인 1인 가구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음
-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1인 가구는 저소득 여성 노인(29.2%), 저소득 남성 노인(28.6%), 모든 여성 노인(93%), 모든 남성 노인(85%) 순으로 조사되어 성남시도 노인 1인 가구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자살 사망률

- 성남시는 2020년 기준 자살 사망률은 21.3명(인구 10만 명당)으로 전국 평

군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성별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성남시 또한 동일한 추세를 보임. 성남시의 자살 사망률을 세 개 구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원구 29.8명, 수정구 25.6명, 분당구 15.4명으로 큰 차이를 보임. 반면 2020년 기준 우울감 경험률¹⁾은 분당구가 6.7%로 가장 높아 전국 및 경기도 수치를 상회하였으며 중원구(5.4%), 수정구 3.6%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자살률 2016~2020년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자료: 성남시 건강도시 프로파일, 2022: 15)

○ 성남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성남시가 시민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한 대표적 조례는 2018년 12월 24일 제정한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와 2023년 4월 3일 제정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
- 1인 가구 기본 조례는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 세부 지원사업으로는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공유부엌, 동아리 등 사회관계망 형

1)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슬픔이나 절망감 등)를 경험한 사람의 분율.

성, 커뮤니티 지원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건강 지원사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고독사 예방 사업 등이 지원될 수 있음

-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해서는 성남시 여성가족과에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1인 가구지원팀이 있으며, 1명의 팀장과 6명의 주무관이 배치되어 있음
 -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긴급 의료,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등이 포함됨

○ 사회적 고립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필요

-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포용이 필요함. 이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개념에 대한 변화와 가족 다양성과 1인 가구의 삶과 같은 주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1인 가구를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존감과 자립심을 향상하기 위한 일상생활 및 심리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음. 특히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과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웰다잉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모든 지역사회 복지정책이 그렇듯 시민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정책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임
- 토론자는 고립된 또는 고립의 위험성이 큰 1인 가구 발굴을 위하여 성남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50개 동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존의 민·관 협력체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 촘촘하게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가 지역 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발굴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계하는 역할을 함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속하는 동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여 지역 특화사업을 시행하기도 함
- 또한 노인을 포함한 전 연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과 관이 협력하여 수립한 제5기 성남시지역사회보장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

련된 세부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을 실제로 실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함. 세부 사업은 부분적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조정 가능할 것임

- 특히 6대 사회보장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이 “촘촘한 돌봄 체계 운영”이며, 세부 사업 중 하나가 “성남시 1인 가구 지원사업”으로 2023년 현재 진행 중임
- 민·관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지역발전 전략 2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또한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에 포함되어 있음
- 성남시는 최근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함. 노인과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은 넓은 의미에서 ‘돌봄’에 포함됨. ‘돌봄’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임. 성남시는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임. 따라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계획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성남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해소되기를 기대함

부 록

- ◆ 연구회 소개
-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공지사향
- ◆ 협력기관

■ 연구회 소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 연 혁 :

2009.10.15. 사단법인 설립 논의

12.10. 창립 기념 토론회 개최 ‘미래한국 복지 건설을 위한 친구상’

12.25~ 현재 성남노숙자시설‘ 안나의 집’ 저녁배식 및 설거지 자원봉사 연3~4회 실시

2010.01.23. 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07.12. 토론회 개최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10.01. 토론회 개최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2011.02.17. 토론회 개최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

06.14. 토론회 개최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09.27. 토론회 개최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10.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12.20. 창립 2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

2012.03.09. 토론회 개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06.29. 토론회 개최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2012.10.12.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설립 승인

10.25. 토론회 개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원확보 방안’

2013.03.07. 토론회 개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2013.04.25.~07.11.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개설(1기 강남시니어플라자 연계)

07.05. 토론회 개최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07.31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등록

09.23.~12.11.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개설(2기)

‘시니어LIFE코디네이터’자격증 보건복지부 승인/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급

11.14. 토론회 개최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2014.04.30. 토론회 개최 ‘저출산 원인과 대책’

06.20. 토론회 개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9.23.~12.09.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개설(3기)

09. 대통령직속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10.22. 토론회 개최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09.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운영

- 2015.02.26. 토론회 개최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
- 2015.04.06.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지원사업 선정
- 04.28. IBK기업은행 휴먼케트워크 멘토링지원사업 선정
- 05.20. 제2인생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개설(4기, 전남 화순군 연계)
- 5, 27~11. 29 멘티 어르신과 멘토의 행복한 멘토링 (정자2동 주민자치센터 연계)**
- 07.09. 토론회 개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 07.21. 제 1회 '청소년과 베이비부머세대 여성 멘토가 함께 하는 공감여행' 실시
- 09.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운영**
- 09.15. 제 1회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FEEL 살리기 한마당!
- 10.22. 창립 6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정책의현황과 정책 제언'
- 2016.02.03. 토론회 개최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05. 보건복지부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
04.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 환경 민간감시활동 지원사업 선정
05. 27~29 통일부 '통일박람회' 부스참가: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 06.21. 토론회 개최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 07.09. 제 2회 중장년층 Raise up 한마당 개최
- 08.27. 제 2회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공감여행 실시**
- 09.2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운영**
- 09. 25 성남탄천환경정화활동**
- 10.15~16 제 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 10.26. '토론회 개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 제언'
- 통일부 '통일박람회' 부스참가: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 11.03 서현중학교 13개 학급 청소년유해방송 특별강의**
- 11.24. 토론회 개최 '2016 청소년 유해방송물 모니터링 사업 결과 보고 및 토론회'
- 12.02. 토론회 개최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 2017.02.25. 시니어라이프코디네이터 교육(서울문화예술대 실버문화경영학과 연계)
04.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송물 모니터링사업 선정
04.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 06.28. 토론회 개최 '노인복지정책 방향-고령인력 참여복지'
- 09.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운영**
- 09.23. 제3회 중장년층 Again 한마당! 개최
- 10.17. 토론회 개최 '베이비부머세대의 일과 건강'
- 10.28~29 제 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 07.14 원탁회의 개최 '성남지역사회통합을 위한 100인 원탁회의'**
- 11.18 독거어르신 연마'사랑의 선물' 전달식(백현동 주민자치센터연계)**
- 2018.04.16.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공모지원사업 선정
04.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 05.02. 토론회 개최 '정치제도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05. 보건복지부 생애주기별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
06. 12~14 제 4회 청소년과 중장년층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 09. 06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 10.02 성남청소년 100명과 함께 하는 성남탄천정화활동**
- 10.18. 토론회 개최 '노인 자살률 낮출 수 없나?-대인관계이론을 중심으로-'

- 10.20 제 4회 중장년층 Reset 한마당!
- 11.10~11 제 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운영
- 12.04~05 조달청 주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기술 및 조달전시회 컨퍼런스 부스운영
- 2019.04.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 05.09. 토론회 개최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 07.17. 토론회 개최 '포용적복지정책과 지속가능성'
- 08.17~18 제 5회 청소년과 중장년층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 09.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운영**
- 09.28 제 5회 중장년층 Begin 한마당!
10. 제 10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 11.07. 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
- 2020.04.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 06.03. 토론회 개최 '코로나19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 07.21. 토론회 개최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 08.25~27 제 6회 청소년과 중장년층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 09.24. 토론회 개최 '위드 코로나 19시대의 보건 의료 인력정책'
- 10.08. 토론회 개최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 현황과 노인단체의 역할'
- 11.03 제 11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가
- 11.06 제 6회 중장년층 Re-Start 한마당!
- 11.26. 토론회 개최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 2021.04.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 06.28. 토론회 개최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08.24. 토론회 개최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 09.15. 토론회 개최 '차기정부의 복지-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 10.15. 제 7회 중장년층 농촌 일손돕기 및 멘토링 공감여행
- 10.19. 토론회 개최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 11.04 제 7회 중장년세대 양코르 한마당!
- 11.10. 토론회 개최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 12.10. 토론회 개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사회복지, 보건 의료, 고용동, 교육-
12. 제 12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가
12. 31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재지정
- 2022.04.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 05.19. 토론회 개최 '국제질서와 한국 정책의 도전'
- 05.26. 제 8 회 중장년세대 Re-Challenge 한마당!
- 06.29. 토론회 개최 '한국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 10.26. 토론회 개최 '제3의 송파, 수원 세모녀 사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 11.08. 토론회 개최 '민선8기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 11.16. 토론회 개최 '인터내셔널 사회복지와 국제협력'
- 11.29~12. 01 제 8회 어르신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농촌일손돕기 및 멘토링 공감여행
- 2023.03.21.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원예프로그램 실시
- 03.31. 성남유통센터 상반기 지역발전운용자금지원사업 선정
- 05.08. 은행1동 저소득가정 아동의 복지서비스지원 실시**
- 05.31. 중장년층과 어르신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실시

07.06. 토론회 개최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운영
07.11.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한 스마트복지의 길'
08.14 2023년 사회적기업활성화사업 제안기업 선정
09. 11 성남 정자7단지 경로당 어르신들의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한 멘토링
09.19. 토론회 개최 '국제개발협력과 스마트 복지전략'
09. 26 은행 1동 지역주민을 위한 기초생계지원사업 어르신 추석음식 대접
10.04~05 제 9회 어르신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공감여행
10.11. 토론회 개최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2023. 10. 11 (수)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

주제 : 코로나 이후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

주제발표자 : 배 은 경 교수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1. 김 기 주 부회장 (요양병원협회)
2. 서 희 경 시의원 (성남시의회)
3. 윤 미 정 상임팀장 (성남시 건강복지센터)
4. 신 명 희 과장 (중원노인종합복지관)
5. 남 현 주 교수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축사: 신 상 진 성남시 시장

박 은 미 성남시의회 부의장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1부 사회: 석 춘 지 前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부 좌장: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2023. 07. 06 (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제 :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

-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 과제 -

주제발표자 : 이 주 열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토 론 자:

1. 김 기 주 부회장 (요양병원협회)
2. 이 만 우 선임입법조사연구관 (국회입법조사처)
3.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이 무 열 교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5.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축사: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관: 국제사회복지협의회

1부 사회: 석 춘 지 (본 연구회 이사 / 前성남시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부 좌장: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관련 언론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4535> 중앙일보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5760 성남일보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5760 데일리안

<https://news.tf.co.kr/read/life/2029224.htm> 더팩트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7070198> 쿠키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5101848> 뉴스1 1보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1GE3LVO> 서울경제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307071618576124f83bf132e7_1&md=20230707165034_U 글로벌이코노믹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0710470871872> 머니투데이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498> 청년의사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2433> 한국NGO신문 1보
<https://www.news1.kr/photos/view/?6088118> 뉴스1 2보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2911> G글로벌경제신문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2331> 한국NGO신문 2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94> 복지연합신문

● 2022. 11. 16 (수)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제 : 인터내셔널 사회복지와 국제협력

주제발표자 :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토 론 자:

1. 한 창 근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 강 대 성 고문 (굿피플)
4. 김 윤 섭 센터장 (고려대학교의료원 사회공헌사업본부 국제협력센터)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1부 사회: 김 은 경 교수 (다산경영정보연구원/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좌장: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ktin.net/62869998> 경인투데이뉴스 1보
<http://www.ktin.net/62869998> 경인투데이뉴스 2보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6865> 한국NGO신문
<https://munhwa.newscj.com/article/20221117580085> 천지일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117000547> 뉴스핌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97> 복지연합신문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9413> 환경일보
https://news.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2/11/20221117102331543f83bf132e7_1?md=20221117123023_U 글로벌이코노믹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289> G글로벌경제신문
<http://www.snillbo.co.kr/45111> 성남일보

● 2022. 11. 08 (화)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1층 컨퍼런스홀

주제 : 민선 8기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모 두 발언 : 서 민 공동대표 (대안연대/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주제발표자 :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토 론 자:

1. 정 효 신 센터장 (굿피플장애인활동지원기관)
2. 석 춘 지 前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3. 박 영 애 前성남시의원
4. 조 기 흥 회계사
5. 남 천 우 관장 (상대원1동 복지회관)
6. 허 은 국장 (성남시 복지국)

공동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성남시민연대, 대안연대

1부 사회: 문 승 권 원장 (다산경영정보연구원/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좌장: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성남아름방송

● 2022. 10. 26 (수)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

주제 : 제 3의 송파, 수원 세모녀 사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 1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 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

주제발표자 : 윤 성 원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토 론 자: 이 정 은 권익옹호 부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제 2주제 : 세모녀의 사회복지-현실과 대책

주제발표자 : 정 재 훈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김 태 완 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평등연구실)

공동주최: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축 사: 김 미 애 국회의원, 이 종 성 국회의원

1부 사회: 석 춘 지 前성남시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부 좌장: 이 정 숙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3995> 글로벌이코노믹

<https://news.zum.com/articles/79097202> 뉴스핌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3962> G글로벌경제신문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050> 환경일보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36449 한국NGO신문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23> 헬스경향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40> 스트레이트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260095> 쿠키뉴스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975> 복지연합신문

국회방송

● 2022. 06. 29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제 : 한국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주제발표자 : 오 건 호 정책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토 론 자:

1. 김 원 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 강 성 호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주 은 선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동주최: 성 일 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축 사: 권 성 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 기 윤 국회의원

1부 사회: 김 은 경 교수 (삼육대학교/ 본 연구회 사무국장)

2부 좌장: 이 용 하 前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7130> 충남일보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39950> 이코노미뉴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189> 여성신문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290157> 쿠키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4725157> 뉴스1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246> 뉴스티앤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570759/> 매일경제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926> 충청일보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459> 내외경제TV
<http://www.eopennews.com/news/view.php?no=30522#none;open> 뉴스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34621 한국ngo신문
https://www.asialbo.co.kr/posting/_extLink.php/21010100439495 아시아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209> 환경일보
http://www.snibbo.co.kr/sub_read.html?uid=44651 성남일보
http://www.cndnews.co.kr/sub_read.html?uid=349966 뉴스충청인
<http://www.boki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540> 복지연합신문

● 2022. 05. 19 (목)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토크콘서트 주제 : 新국제질서와 한국정치의 도전:

-복지 및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정치적 대응력 진단-

○초청강사: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공동주최: 송 석 준 국회의원
 ○격려사: 차 흥 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前보건복지부장관
 ○축 사: 서 상 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前보건복지부장관
 1부 사회: 안 자 희 박사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170> G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5210923386180207> e대한경제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86> 여성신문
<http://www.boki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232> 복지연합신문

● 2021. 12. 10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차기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주거(부동산)-

○기조발제 및 사회복지: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용·노동: 이 지 만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 육: 양 정 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주거(부동산): 서 진 형 회장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축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1부 사회: 안 자 희 박사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김 미 령 소장(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2111431412520360> e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2111431412520360> 환경일보
http://www.snibbo.co.kr/sub_read.html?uid=44311 성남일보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677> 시사포커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115> 글로벌경제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33> 백세시대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144> 이로운넷
<http://www.bokji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51> 복지연합신문

● 2021. 11. 10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발표자 :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토 론 자:

1. 조 성 환 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 김 정 학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3. 김 상 철 교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축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1부 사회: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본 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892499/> 데일리안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1131339373320664> e대한경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111000503> 뉴스핌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016> 환경일보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4202 성남일보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342> 시사포커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521> 글로벌경제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9880 한국NGO신문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144> 충청일보
<http://m.bokji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50> 복지연합신문

● 2021. 10. 19 (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주제발표자 : 김 우 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토 론 자:

1. 이 태 석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2. 주 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3. 이 영 숙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4. 정 창 룰 교수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축 사: 이 효 수 전 영남대학교 총장

1부 사회: 김 기 영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본 연구회 이사)

2부 좌장: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4116 성남일보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9320 한국NGO신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0201824522680634> e대한경제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20> 백세시대
<http://www.bokji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76> 복지연합신문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269> 시사포커스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325> 충청일보

● 2021. 9. 15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자 : 김 원 식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토 론 자:

1.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박 영 용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3. 김 광 병 교수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남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4. 김 은 하 센터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5. 이 상 철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축 사: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 원: 행정안전부

1부 사회: 안 자 희 부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892499/> 매일경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3805>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128449> 한국NGO신문

<http://www.snibo.co.kr/44068> 성남일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9171555584220949> e대한경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915001201> 뉴스핌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053> 충청일보

● 2021. 8. 24 (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주제발표자 : 김 동 섭 교수 (한림대학교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보건복지전문기자)

토 론 자:

1. 박 기 남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국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2.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3. 박 선 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4. 김 충 환 과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부 사회: 김 은 경 삼육대학교 겸임교수/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무국장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23154/> 매일경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6177/?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7788 한국NGO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00> 복지뉴스

<http://m.snibo.co.kr/a.html?uid=43991> 성남일보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281321469870185 대한경제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826000451> 뉴스핌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디지털타임스

<https://www.chosun.com/national/obituary-personnel/2021/08/24/OJCOKU6SNFEP5IIDMLUAXXRBCA/> 조선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372> 환경일보

● 2021. 6. 16 (수)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주제발표자 : 김 태 기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자:

1. 김 주 섭 선임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2. 이 재 모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3. 김 대 광 청년 (취업후 퇴사, 창업/ 챗터서울 대표)
4. 이 형 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_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_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_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_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세시대 _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_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_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1. 26 (목)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자 :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 고령사회연구소장)

토 론 자:

1. 박 양 숙 소장 ((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2. 황 진 수 명예교수 (한성대학교)
3. 우 보 환 본부장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부)
4. 박 기 준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_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_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_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_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세시대 _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_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_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0. 08 (목)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제 :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단체의 역할

주제발표자 : 박 영 란 교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토 론 자:

1. 한 정 란 교수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한국노년학회장)
2. 박 노 숙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
3. 백 승 민 박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4.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0/10/08/Y12ZT44U2BA27K5ZDXK4QYIHOQ/?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선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53> 복지연합신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32331/> 매일경제
<http://m.ngonews.kr/120618> 한국NGO신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010000108> 뉴스핌
http://m.getnews.co.kr/view.php?ud=EJ081506034877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5948>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47> 백세시대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10939375520029> e대한경제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859 성남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211> 충청일보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4> 실버아이뉴스

● 2020. 09. 24 (목)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위드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주제발표자 :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토 론 자:

1. 신 영 석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2. 정 형 선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연세대의료복지연구소장)
3. 이 태 윤 기자 (중앙일보 복지행정팀)
4. 홍 선 미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88321/> 매일경제
<https://news.join.com/article/23879571> 중앙일보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2819/?sc=Daum> 데일리안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18> 복지연합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219> 충청일보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9231048523214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24001066> 뉴스핌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871> 병원신문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39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뉴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06> 청년의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9511> 약업신문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799 성남일보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8> 실버아이TV/NEW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0423 한국NGO신문

● 2020. 07. 21 (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제 :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제 1주제: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주제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오 건 호 공동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 2주제: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주제발표자 : 양 재 진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

토 론 자: 1. 윤 홍 식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2.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개 회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축 사: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격 려 사: 이 갑 산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1부 사회: 조 중 근 회장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5998940202665018>전기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9225한국NGO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6731?sc=Daum>데일리안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548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73>경인매일
<http://www.naewoe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839>내외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42>복지연합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0000980>뉴스핌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05>이로넷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53>한국정책신문

● 2020. 06. 3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전망

주제발표자: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장/복지대학원 주임)

토 론 자:

1. 이 진 한 기자 (동아일보 의학전문)
2. 사공 정 규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3. 공 선 희 전문연구위원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4. 임 강 섭 팀장 (보건복지부 커뮤니케이션 추진단)

1부 사회: 김 기 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부 좌장: 이 정 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김 상 훈 국회의원

협력단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사)서울시보건협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지난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 3)복지 TV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D=34414&index=942&gotopage=4

복지TV: <https://tv.naver.com/v/14221827>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1324954199726018> 전기신문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90> 백세시대신문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73> 농촌여성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8585 한국NGO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23188/view> 농민신문
<http://sundaytimes.kr/View.aspx?No=864001> 선데이타임즈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5050?sc=Daumlogo> 데일리안
http://www.snli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경인매일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95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083> 의학신문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3431> 메드포뉴스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6031526242324ecd436290_16 글러벌경제신문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830> 내외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31> 복지연합신문

● 2019. 11. 7(목)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 제 :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

토크발표자:

1.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전 보건복지부 장관)
2.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제 9.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3. 성 규 탁 교수 (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 글로벌 문화실천나눔포럼 상임대표)
4. 조 성 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명예 이사장/ 제 17.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부, 3부 사회: 강신성 박사

2부 토크콘서트 진행: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fnew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590229774209> 파이낸셜경제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1116168042040&outlink=1> 돈이 보이는 스페셜 뉴스 Money 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4935 한국NGO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735> 충청일보
<http://www.dailian.co.kr/news/view/841945> 데일리안
<http://www.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72889> 엔지티브
http://www.snli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3518309189542096> 전기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26> 복지연합신문

● 2019. 07. 17(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포용적 복지 정책과 지속가능성

주제발표자: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토 론 자:

1. 조 중 근 교수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 신 소 정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학과장)
3. 김 동 섭 논설위원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63944931183318035> 전기신문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2406 한국NGO신문
<http://www.focus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9> 포커스투데이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72> GV글로벌뉴스통신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1> 백제시대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811721/?sc=naver> 데일리안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8> 내외통신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44> 복지연합신문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5> 실버아이뉴스
http://www.snli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906> 국제신문

● 2019. 05. 09(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정 순 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1.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2. 이 상 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3. 황 남 희 연구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1930?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4931?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51011178029947&outlink=1> 머니S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1052 한국NGO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794496>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5> 백세시대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38> 복지연합뉴스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5> 실버아이뉴스
<http://www.ngonews.com/news/article.html?no=13751> 시민운동연합신문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58086391179232018> 전기신문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0346 성남일보

● 2018. 10. 16(화)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 1 주제 : ‘노인 자살률 낮출수 없나?’ -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현 명 호 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 론 자: 양 두 석 교수(안실연 자살예방센터장)

제 2 주제 :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 위기진단’ -나이 들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주제발표자: 박 지 영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김 종 래 대표(복지연합신문)

1부 사회 : 문 승 권 박사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조 성 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복지TV, 백세시대신문, 한국고령화산업포럼, 생명연대

● 2018. 05. 02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

주 제 :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발표자: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좋은나라 연구원 이사장)

토 론 자:

1. 양 재 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2. 정 종 훈 기자 (중앙일보)
3. 노 대 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이 진 박사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부 사회: 김 진 학 박사 (본 연구회 이사/ 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2017. 10. 17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

제 1 주제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영방식 모색

주제 발표자 : 선 우 덕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서 동 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동 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3. 유 승 호 교수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제 2주제 : 중장년 실업대책과 재교육운영방식 모색

주제발표자 : 김 영 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

1. 한 국 은 초빙교수 (송실대학교)
2. 최 상 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3. 지 은 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좋은나라연구원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2017. 06. 29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기조 발제 및 좌장: 노인복지정책 방향: 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제 1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주제발표자: 김 미 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2주제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주제발표자: 전 용 호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3주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주제발표자: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자치부

●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016. 12. 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주제 발표자 :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 도 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주제 발표자 : 고 재 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 영 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2 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 동 주 최 :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6. 11. 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송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주제발표자 : 성 윤 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 :

1. 김 경 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 최 옥 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3. 박 열 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4. 박 찬 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5. 한 병 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6. 양 혜 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주제발표자: 이 진 석 교수 (서울대 의대)

토 론 자:

1. 이 진 한 차장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정 순 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은 자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4. 최 기 춘 실장 (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 연 숙 교수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

1. 박 신 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2. 구 혜 영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재 만 과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 은 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 2016. 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 발표자 : 류 진 석 교수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신 성 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2. 김 태 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천 우 정 심의관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박 인 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고 경 환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 무 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 득 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 명 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고용노동연구원)

토론자 :

1. 이 준 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정 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김 동 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 정 양 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5. 이 수 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 옥 주 (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정 경 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론자:

1. 김 현 수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2. 이 상 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3. 김 경 록 소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 영 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 성 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 은 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

주제 발표자 :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고 수 석 연구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유 근 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 은 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김 원 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은 성 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 (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 명 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최 진 봉 교수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 유 근 형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 범 진 이사장 (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 발표자 : 황 명 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양 점 도 교수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2. 구 종 회 석좌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3. 양 성 근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4. 권 오 영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5.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축 사 : 최 성 균 회장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 준 경 교수 (남서울대학교)

● 2014. 4. 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

주제 발표자: 양 찬 희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 발표자: 이 삼 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발표자: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 한 곤 회장 (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1. 박 미 숙 과장 (천안시 여성가족과)
2. 김 태 희 교수 (백석문화대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3. 이 명 숙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이 은 하 분과장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축 사 : 공 정 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 발표자 : 강 명 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

토론자:

1. 박 병 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이 태 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3. 서 병 수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국민연금공단

●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 발표자 : 안 상 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1. 김 정 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3. 이 창 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4. 유 종 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5. 허 재 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정 윤 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현대자동차

●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 허 준 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론자 :

1.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2. 정 은 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3. 현 진 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4. 김 동 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5. 김 명 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6.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 성 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 영 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 제 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 윤 경 (본 연구회 운영위원)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국민건강보험

●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 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동 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2.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3. 조 중 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4. 박 민 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5. 김 선 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6. 윤 철 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 정 레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 양 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홈페이지

●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 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신 인 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2. 이 의 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3. 김 광 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 윤 중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 성택 총장 (그리스도대학교)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 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박 미 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 준 수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 정 한 과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4.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 기 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흥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 2011. 12. 20 창립 2주년 겸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제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자: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강 학 봉 사업본부장 (사회공동모금회)
2. 임 혜 성 팀장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
3. 광 대 석 사무국장 (cj 나눔 사무국)
4. 김 현 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5. 안 명 옥 前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 원 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석 말 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갯츠>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 영 선 연구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

토론자 :

1. 박 용 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 백 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 상 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 심 윤 종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1부 사회 : 박 서 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 2011. 6. 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 : 김 용 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미 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2. 이 기 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3. 우 재 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4. 최 용 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 성 이 前 보건복지부 장관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 이 삼 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론자 :

1. 정 영 훈 과장 (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 미 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 명 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 기 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 진 수 희 보건복지부장관

차 흥 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 영 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 선 주 (바리톤). 이동형(테너)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 발표자 : 최 성 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론자 :

1.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2. 신 영 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 순 헌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 영 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1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자 : 정 무 성 원장 (前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론자 :

1. 박 헌 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 재 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 태 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 찬 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 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6. 모 동 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 세 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1부 사회 : 이 승 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 발표 : 백 종 만 학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론자 :

1.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2. 장 향 만 사무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3. 이 애 런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4. 장 윤 영 도의원 (한나라당)
5. 지 관 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 석 권 前 단국대 총장

김 경 우 회장 (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친구상

주제 발표자 : 강 옥 모 교수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김 병 숙 교수 (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 김 창 남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3. 조 순 태 소장 (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4. 정 무 성 교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 범 진 前 총장 (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공 지 사 항 □

1. 토 론 회

-일시: 2023. 11월 말

-장소: 국회의원회관

2 토 론 회

-일시: 2023. 12월 초

-장소: 국회의원회관

3 노숙자 저녁배식 및 설거지 자원봉사

-일시: 2023. 성탄절

-장소: 성남 모란 '안나의 집'

-참여대상자: 남녀노소 불문

*아래 주소를 클릭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https://www.youtube.com/channel/UCVqg_WH11FaBCAx-KZ3lnKg 유튜브 주소

2) www.sswkorea.org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3)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9959424971> 회의 ID: 995 942 4971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2015.10.22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위한 일자리정책의현황과 정책제안』 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 3)복지 TV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6월 29일 '한국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www.sswkorea.org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d=34414&index=942&gotopage=4

● 2022년 10월 26일 '제 3의 송파·수원 2모녀사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www.sswkorea.org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d=34414&index=942&gotopage=4

■ 협 력 기 관 ■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 (센터장 전 승 규)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 (총재 임 성 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학과장 조경훈)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회장 성 규 탁)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 (학과장 도 미 향)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리더십 한림원 (원장 정경배)
휴먼서비스아카데미 (원장 최 은 미)
대한민국리더스포럼: 배려와 섬김 (회장 박 창 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 연 보)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김 광 훈)
비)아동안전위원회 (회장 이 제 복)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조 중 근)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회장 이 진)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소장 김 미 령)
재단법인 만광장학회 (이사장 홍 효 주)
성남시 은행1동 다목적복지회관 (관장 장창현)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1005-002-894690(우리)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본 법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시민단체로 복지전공자, 복지종사자, 복지관계자 아니어도 누구든지 함께 우리나라를 선진복지국가로 만들어 가실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코로나 이후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

일 시 2023. 10. 11 (수) 오후 1시 30분 ~ 오후 4시

장 소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

주 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축 사 신 상 진 성남시 시장
박 은 미 성남시의회 부의장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주제발표 배 은 경 교수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김 기 주 부회장 (요양병원협회)
서 희 경 시의원 (성남시의회)
윤 미 정 상임팀장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 명 희 관장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남 현 주 교수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사)대한노인회수정·중원·분당구지회,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남시민포럼, 고도제한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국제스마트복지센터(GSWC), 환경과복지를 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복지공공연구소,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국제개발협력과 스마트복지전략

정·책·토·론·회

2023. **9. 19** (화) 14:00-17: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

개회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발제

- 01** [국제개발협력과 글로벌 사회정책의 동향]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02** [국제개발협력의 NGO(비정부기구) 역할과 스마트복지]
이명신 전 월드비전 해외사업본부장
- 03** [한국의 ODA(공정개발원조)전략과 국제사회복지]
황원규 강릉원주대 명예교수

좌장

최병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패널토론

- 노영선 (사)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부장
-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
- 유태균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우용 신한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



| 주최 |  서정숙, 김성주, 이종성 국회의원

| 주관 |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국제스마트복지센터(GSWC),
(사)선진복지사회 연구회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

의료 · 영양 · 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 과제

일 시 2023. **07. 06** (목)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대화홀

주 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주 관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축 사 서 상 목 前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민선 8기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주제발표 이 주 열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토 론 자 김 기 주 부회장 (요양병원협회)

이 만 우 선임입법조사연구관 (국회입법조사처)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 무 열 교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 | 사)서울특별시보건협회,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NGO연합, 공정사회실천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2023. 07. 11 (화) PM.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한 스마트복지의 길 -개도국에의 시사점

| **주최** | 서정숙·김성주·이종성 국회의원 | **주관** | 국제스마트복지센터(GSWC)
| **공동주최** |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 (사)선진사회복지연구원

| **발제** |

- **스마트복지: Why & How?**
서상목 |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디지털 복지국가,
우리나라의 실험과 개도국에의 시사점**
김수완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개도국의 스마트한 복지정책
시행방향 모색**
이현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 **복지와 일자리의 선순환**
최 군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좌장** |

서상목 |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토론** |

- ① 이정숙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② 정무성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③ 조상미 |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 ④ 한은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위원





일 시

2022.11. 16 (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최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주 제

인터내셔널 사회복지와 국제협력

발 표 자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강 대 성 고문 (굿피플)
- 2) 장 명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3) 한 창 근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4) 김 윤 섭 센터장 (고려대학교의료원 사회공헌사업본부국제협력센터)



YouTube



facebook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 시청 바랍니다.

협력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공정언론국민연대

민선 8기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2022. 11. 08 (화) 오후 2시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1층 컨퍼런스홀

공동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성남시민연대 ■ 대안연대

후원



행정안전부

주제

민선 8기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모두발언

서민 공동대표 (대안연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발표자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토론자

정호신 센터장 (굿피플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석춘지 前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영애 前 성남시의원

조기흥 회계사

남천우 관장 (상대원1동복지회관)

허은 국장 (성남시 복지국)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 | 성남지역서민단체연대회의,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성남전철협, 환경과복지를 생각하는시민의모임, 공정언론국민연대, 전국민속5일장연합회 성남지부, 자영업자소상공인성남연대,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성남지부, 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민의힘 성남지부, 성남환경실천연합회, 성남의힘

제 3의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2022.10.26. (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공동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이종성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발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

발제자 윤성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토론자 박영용 회장(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발제 2 세모녀의 사회복지 - 현실과 대책

발제자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김태완 연구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평등연구실)

정중규 정책실장(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본 토론은 YouTube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 |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공공복지연구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2022. 06. 29 (수)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성 일 종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격려사 이갑산 명예회장(범시민사회단체연합)

발표자 오건호 정책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좌장 이용하 박사(前국민연금연구원장)

토론자 김원섭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강성호 박사(보험연구원)

주은선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토크콘서트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검색하세요.

협력단체 |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공정언론국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최연혁 교수 초청 토크콘서트

新국제질서와 한국정치의 도전:

복지 및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정치적 대응력 진단

일시 2022. 5. 19 (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송 석 준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초청 교수

축사 서 상 목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前 보건복지부 장관

격려사 차 흥 봉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 前 보건복지부 장관

후원  행정안전부



최 연 혁 교수

·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본 토크콘서트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검색하세요.

협력단체 |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133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남대로 1182, 621호(KT 모란빌딩)
TEL 070-8793-5702 FAX 0504-404-2652
E-MAIL: 2select@hanmail.net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2021

제7회 중장년세대

야코르 한마당!

일시 : 2021.11.24 (목) 오전 9시~오후 4시
장소 : 양평 용문사 대외공연장
참여자 : 서울, 경기도 지역 중장년층 약 130명



2022
제8회 중장년세대
Re-challenge
한마당!

힐링 산책 &
Talk 콘서트
& 장기자랑

일시 : 2022년 5월 26일(목)
오전 9시~오후 4시
장소 : 양평 용문사 대외공연장
참여자 : 서울, 경기도 지역 중장년층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www.s2019.com

1부 : 힐링 산책
10:30 ~ 11:00
행사장 도착
산책길 열거

2부 : TALK 콘서트
11:00 ~ 12:00
1. 중노년층의 보행법 이야기
김준호 교수(국립보건연구원)
2. 중장년기의 마음건강
김희희 박사(국립보건연구원)
3. 슬기로운 스마트폰 활용하기
홍지현 교수(국립보건연구원)
4. 몸이와 재능기부로 활기찬 노후 보내기
조현숙 교수(국립보건연구원)

3부 : 점심
12:00 ~ 13:00

4부 : 장기자랑
13:30 ~ 14:00 김태형 (30년가)
14:30 ~ 15:00 장기자랑 - 각 지역별 8명
15:00 ~ 16:30 시상식 및 단체사진 및 해산
17:00 ~ 17:30 길로리 go go ~

본 연구회 소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www.s2019.com

설립목적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복지문화 및 사회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 연구, 조사, 정책개발 및 복지인재양성, 복지인재의 복지교육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실현하고, 사회적 공헌을 실현하는 선진복지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연혁

연도	연혁
2017년	1.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설립 (11월)
2018년	1. 양평 용문사 대외공연장 조성 (11월)
2019년	1. 양평 용문사 대외공연장 조성 (11월)
2020년	1. 양평 용문사 대외공연장 조성 (11월)
2021년	1. 양평 용문사 대외공연장 조성 (11월)
2022년	1. 양평 용문사 대외공연장 조성 (11월)

본 연구회의 설립 목적은 선진복지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 연구, 조사, 정책개발 및 복지인재양성, 복지인재의 복지교육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실현하고, 사회적 공헌을 실현하는 선진복지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본 연구회의 설립 목적은 선진복지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 연구, 조사, 정책개발 및 복지인재양성, 복지인재의 복지교육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실현하고, 사회적 공헌을 실현하는 선진복지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본 연구회의 설립 목적은 선진복지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 연구, 조사, 정책개발 및 복지인재양성, 복지인재의 복지교육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실현하고, 사회적 공헌을 실현하는 선진복지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본 연구회의 설립 목적은 선진복지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 연구, 조사, 정책개발 및 복지인재양성, 복지인재의 복지교육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실현하고, 사회적 공헌을 실현하는 선진복지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본 연구회의 설립 목적은 선진복지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 연구, 조사, 정책개발 및 복지인재양성, 복지인재의 복지교육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실현하고, 사회적 공헌을 실현하는 선진복지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2015
제1회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Foot 살리기 한마당!

일시 : 2015.09.05 (목) 오전 9시~오후 4시30분
장소 : 양평 용문사 대외공연장
참여자 : 서울, 경기도 지역 중장년층 약 230명



2017
제3회 중장년세대
Applaud 한마당!

일시 : 2017.06.23 (목) 오전 9시~오후 4시30분
장소 : 양평 용문사 대외공연장
참여자 : 서울, 경기도 지역 중장년층 약 280명



2019
제5회 중장년세대
Enjoy 한마당!

일시 : 2019.06.26 (목) 오전 9시~오후 4시30분
장소 : 양평 용문사 대외공연장
참여자 : 서울, 경기도 지역 중장년층 약 250명



2020
제6회 중장년세대
Reunion 한마당!

일시 : 2020.11.07 (목) 오전 9시~오후 3시30분
장소 : 양평 용문사 대외공연장
참여자 : 서울, 경기도 지역 중장년층 약 130명



2016
제2회 중장년세대
Rising up 한마당!

일시 : 2016.07.09 (목) 오전 9시~오후 4시30분
장소 : 양평 용문사 대외공연장
참여자 : 서울, 경기도 지역 중장년층 약 230명



2018
제4회 중장년세대
Rise up 한마당!

일시 : 2018.10.20 (목) 오전 9시~오후 4시30분
장소 : 양평 용문사 대외공연장
참여자 : 서울, 경기도 지역 중장년층 약 230명



2019
제5회 중장년세대
Enjoy 한마당!

일시 : 2019.06.26 (목) 오전 9시~오후 4시30분
장소 : 양평 용문사 대외공연장
참여자 : 서울, 경기도 지역 중장년층 약 250명



2020
제6회 중장년세대
Reunion 한마당!

일시 : 2020.11.07 (목) 오전 9시~오후 3시30분
장소 : 양평 용문사 대외공연장
참여자 : 서울, 경기도 지역 중장년층 약 130명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2023.10.04.~05 제9회 어르신과 중장년층이 함께하는 멘토링 공감강릉여행



사회적 기업 2차 탐방 화성 '품안에', 화성 '마음을 잇다', 제부도 문화탐방 (2023.09.12.)



정자 7단지 경로 어르신들의 심리, 정서를 위한 멘토링 2차 교육 (2023.09.11.)



사회적 기업 1차 평택 '브라운 스킨', 여주 '여행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탐방 및 영릉문화탐방 (2023.08.24.)



정자 7단지 경로어르신과 중장년이 함께하는 정서지원 원예프로그램 (2023.07.26.)



2023 안양천 수해 쓰레기 환경정화 활동 (2023.07.21.)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 과제
(2023.07.06.)



2023.5.24. 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와 이해 /소셜캠퍼스ON 경기센터 5층 세미나실



2023.5.31.어르신과 중장년층이 함께하는 멘토링 공감영주여행



2023.5.24. 분당 정자 7단지 경로당 어르신 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2023.05.08. 성남 은행동 다문화가정 아동 꿈나무들과 간담회 및 「사랑의 선물」 전달식 은행1동복지회관 세미나실



2023.5.14. 중장년과 함께하는 역사탐방/동대문, 낙산공원, 창경궁



2023.03.21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봄 원예프로그램/ DDP 2층 세미나실



2023 설날(1.24), 추석(9.29) 노숙자시설 저녁식사 배식 및 설거지 자원봉사